

할렐루야,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심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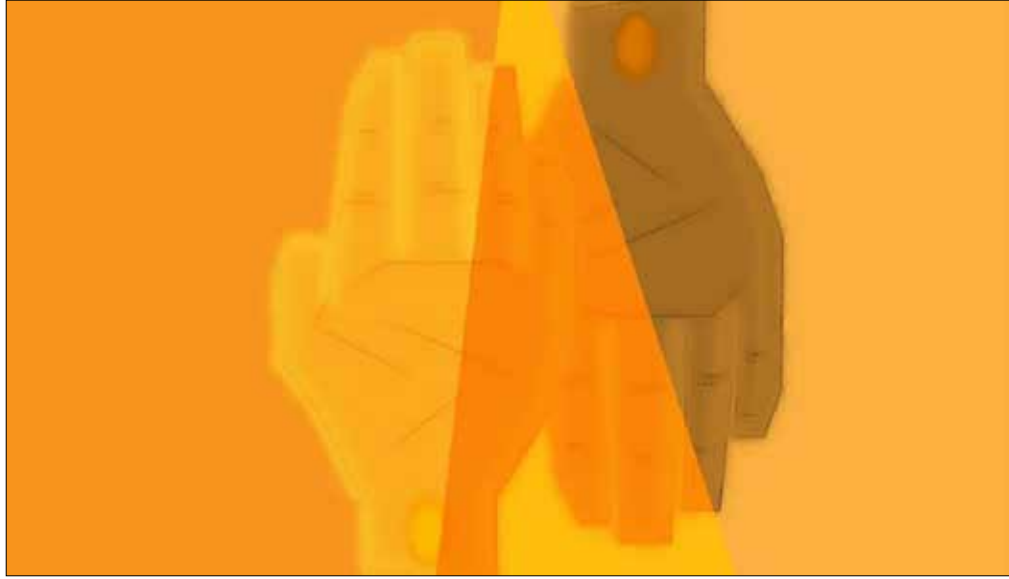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마태복음 4장 1-2절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로널드 J. 사이더의 유산” 변혁적 선교를 형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선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실천에 대한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여정의 역사는 북미 신학자이자 활동가인 로널드 J. 사이더(Ronald J. Sider)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 그는 2022년 7월 27일 82세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죽음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그를 기념하고 그의 업적이 교회 선교에 끼친 지속적인 영향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준다.

그는 거의 45년 동안 필라델피아 인근의 파머(Palmer) 신학교에서 신학, 통전적 사역, 공공 정책 분야의 저명한 교수이자 사회행동을 위한 그리스도인(Christians for Social Action)의 설립자이기도 했지만, 다문화 선교사로 섬긴 적이 없었다. 영혼과 사회를 모두 다루는 온전한 기독교에 주목하던 그의 연구와 사역은 주로 북미라는 자신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북미 대륙은 그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없었고, 사이더의 영향력은 대륙의 경계를 넘어 교회의 세계 선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순전한 우연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그는 국제 로잔대회에 세 차례 모두 참석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2010년 케이트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 그와 함께했다. 제1차 대회와 제2차 대회 사이 1980년도에 사이더는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Fellowship, 현재는 World Evangelical Alliance)의 윤리 및 사회부서(Unit on Ethics



and Society)에서 일하며 단순한 생활방식과 공동체 개발에 관한 두 차례의 협의를 조직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문화적 맥락에 적절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그의 시야 안에는 전 세계가 담겨 있었다. 그는 변혁의 운동을 촉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 선교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는데, 이는 인페미트(INFEMIT, International Fellowship for Mission as Transformation), 옥스퍼드 선교 연구 센터(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 그가 초대 편집장을 역임한 저널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국제 레그넘 북스(Regnum Books)와 같은 지속적인 단체에서 잘 드러난다. 변혁 운동 혹은 ‘변혁으로서의 선교’는 신학적인 학문에 뿌리를 둔 통합적, 상황적, 관계적 선교를 실천하는 성찰하는 실천가

들의 느슨한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정의될 수 있다. 변혁주의자들은 평화, 정의,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해방 없는 복음화, 구조의 변화가 없는 마음의 변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 화해가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화해, 공동체의 구축이 없는 교회 개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이 운동의 뿌리와 열매를 파헤쳐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매번 로널드 J. 사이더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물론 그는 혼자만 아니었다. 르네 파디아(Rene Padilla), 사무엘 에스코바르(Samuel Escobar), 비나이 사무엘(Vinay Samuel), 멜바 마가이(Melba Maggay), 콰메 베디아코(Kwame Bediako), 피터 쿠즈미크(Peter Kuzmic) 같은 인물들도 친구 혹은 ‘협력자’로서 함께 ‘변혁으로서의 선교’에 동참했다. 온전한

복음에 대한 변혁적 이해를 기초이자 배경으로 삼아, 사이더가 이 운동을 형성할 때 기반으로 한 다섯 가지 주요 방법을 살펴보자.

변혁과 제자도: 나는 사회 운동가가 아니다

첫 번째 요소는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제자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이더를 사회 정의와 연관시킨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이더의 대답은 분명했다. “나는 사회 운동가가 아닙니다.” 이 답변은 선언적이면서 당혹스럽기도 했다. 사이더가 스스로를 사회 운동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주의 구주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3면으로 계속)



주민발의안 설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좌로부터 박세현, 신승훈, 강태광, 양경선 목사.

‘다음세대를 위한 소중한 필수적 서명운동’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온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자”

한인교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 본부’(대표 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발족 되면서 활발히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본부 측은 TVNEXT.org(공동대표 김태호 목사, 새라 김 사모)에 따르면 “서명 숫자는 무효표를 감안하여 총 70만표가 필요하다. 이 서명 운동이 성공하여 11월 선거 시 발의안이 투표에 포함 되어 승리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발표했다.

△공립/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 샤워실, 락커룸을 출생성

별로 사용
△여학생 스포츠에 성전환 학생 참가 금지
△학교에서 학생을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학교에서 18세 미만 학생 성전환(trans) 시술 금지,
△남성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의 성전환 의료서비스에 정부 자금 사용 금지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9면으로 계속)



시론 백승철 목사

3면



푸른초장 장성철 목사

4면



신앙독서 독후감 수상작 윤주미 성도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목회의 본질

목회 전략과 방법

평신도 제자훈련

제29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2024년 4월 29일(월) - 5월 4일(토)

평신도를 깨운다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강사 오정현 목사 (서울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미주 국제제자훈련원 대표이사)

등록비 \$475 (일반등록) → \$420 (조기등록할인 3/11일까지)

대상 담임목회자 및 칼세미나를 이미 수료한 담임목회자와 동역하는 부교역자 선교사 및 기관 단체장

등록 dmi.sarang.com

문의 714.635.3000

CAL SEMINAR



발행인 칼럼

보는 것을 믿는가, 믿는 것을 보는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르네상스를 통해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의 삶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신적 세계를 말하지 않아도 되었다. 르네상스 예술은 보이지 않는 천상(天上)의 세계를 애써 묘사할 필요가 없었다. 인간 중심의 고대 회화와 옛 로마로의 회귀를 꿈꾸며 그런 삶의 방향을 정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곡선과 근육에 찬탄을 보낼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면을 높이는 데 열중하였다. 종교보다 과학이 더 신뢰할 대상이라 하며 이제야 종교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여기저기 모여서 희희낙락(喜喜樂樂)하였다. 르네상스의 정신은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을 관통하며 현대의 철학과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학조차 세속화 시켰다. 프린스턴 신학이 허물어지는 것을 복기(復讐)해 보라. 신정통주의의 태동(胎動)을 생각해 보라. 종교 간의 대화라는 미명아래 꽃피운 다원주의의 패역을 목도해 보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닌지를 인간의 이성 결정하겠다는 현대 신학의 기고만장(氣高萬丈)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보는 것만 믿는다는 세상이 완벽히 도래했고, 21세기 팬데믹 이후의 지금도 그것이 견고한 시대정신이 되었다.

보는 것을 믿는 것, 확실한 길인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보는 것에 얼마나 스스로 속는가. 나를 잘못 보고 지나치게 비교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보는 것을 믿겠다고 하는 일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길 같지만 가장 위험한 길이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다. “---는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 3:17-18) 눈을 뚫으나 눈 먼 자가 너무나 많다. 눈으로 본다고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꼭 같은 것을 보는데 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는 각기 다르게 보는가. 그리고 각기 큰 소리로 자기가 바르게 보았다고 외치는데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르네상스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보는 것만 믿는 세상에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믿는 것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뵈오며---” 하니 크로스바가 지은 찬송을 자주 부르곤 한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다. 그는 천국을 선명히 보았다. 캄캄한 속에 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분명히, 천국을 선명히 보았을까. 오직 믿음으로 보았다. 믿음으로 보는 자는 계시의존사상을 가진 자이다. 나의 이성 보다 계시가 먼저 있고, 나의 눈이 아니라 계시가 진리인 것을 알고 있기에, 보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산다. 보는 것을 믿으라는 르네상스와 달리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보라고 오늘도 외친다.

보는 것을 믿는 것, 믿는 것을 보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 어디 있겠는가. 르네상스의 후예들은 보는 것만 믿겠다고 한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다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 것을 보며 살겠다는 자들이다. 나는 누구인가. 르네상스의 후예인가 종교개혁의 후예인가. 나는 과연 보는 것을 믿는 자인가, 믿는 것을 보는 자인가.

사역 현장의 “허용된 죄들”

숨은 죄를 회개하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리자!

우리 가족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우리가 있던 나라에서 최악에 빠진 모습을 찾이란 매우 쉬웠다. 동남아시아는 거리 모퉁이마다 사원과 신사, 제물(祭物)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거짓 신을 숭배했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대낮에 벼락이 매음굴이 영업을 하고 불법 마약이 거래되었다. 우리 주변을 가득 메운 어둠을 보는 데는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사정은 비슷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 술 취함, 성적 부도덕 등을 찬양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다.

이러한 노골적인 죄의 모습이야말로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큰 이유이다. 우리는 어둠을 보고 언덕 위의 도시로 출발한다(마 5:14-16).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는 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진단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은 너무 자주 덮어버린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지만,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7:3-5). 제리 브리지스는 Respectable Sins(허용된 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 속에 담긴 죄를 식별하는 건 쉽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바로 ‘믿는 자들이 짓는 허용된 죄’이다. ... 사실상 우리는 전반적인 사회와 마찬가지로 내가 짓는 죄를 부인하며 살고 있다.”

브리지스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그런데 이 진리를 평신도를 넘어 국내의 사역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떨까? 우리가 정직하다면, 몇몇 “허용된 죄”에 관해서는 교회 지도자라고 해도 쉽게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죄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는 종종 당연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 격정한다

사역에는 돈이 많이 들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족한 자금이라는 상황은 수시로 만나는 현실이다. 재정을 둘러싼 두려움은 종종 우리를 자린고비의 사고방식



으로 사역하게 만든다. 자원을 비축한다. 불안에 사로잡혀 관대함에서 멀어진다. 격정하는 마음을 현명한 청지기 태도라는 식으로 위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불안과 걱정이 어떻게 든 재정적인 바닥은 치지 않도록 지켜 줄 거라는 심정에서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된다.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분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마 6:25-34).

2. 소유권을 주장한다

지금 다들 허용된 죄도 자린고비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종종 흠이 건조한 곳에서 사역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다가 척박하던 토양에서 싹이 트고 뿌리가 자라면 자기도 모르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열매 맺는 사역 자체가 성공했다는 증거이고, 언젠가부터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진다. 그러다 보면 다른 교회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사역을 더 키우려고 하고, 또 우리가 키워낸 제자들이 다른 곳에서 봉사하려는 것을 막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를 독려하곤 했다. “우리만 성장하는 소문자 나라(kingdom)가 아니라 대문

자 하나님 나라(Kingdom)를 추구합시다. 다른 교회도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에 좌절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막 9:40).

3. 떠돌고 비방한다

사역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게 있다. 비공개로 모일 때, 짜증을 분출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말이다. 지혜와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미명으로 우리는 같은 교회를 섬기는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변의 다른 사역자나 교회까지 뻔뻔스럽게 비방한다. 사역 팀이라면 서로 통찰력과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다. 하지만 때로는 선을 넘어 험담할 때도 있으면, 그럴 때면 기분이 좋다는 사실에 솔직해야 한다.

누군가 내 자녀를 욕하고 다닌다고 할 때, 화가 나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욕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실지 한번 상상해 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 13:34-35).

(10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신년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쇼핑: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Silver Mission of New York
“가둔지 보내둔지 하자!”
2024년 봄 제37기 뉴욕실버선교학교
2024. 2.26(월)~4.29(월) 10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아래와 같이 제 37기 훈련을 갖습니다
개강일시: 2024년 2월 26일(월) 저녁 6시 30분(식사) / 7시 30분 강의
장소: 뉴욕갯세마네교회 (이지용 목사 담임)
강사: 선교관련 저명한 강사
대상: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등록비 \$100
특전: 선교지 파송 사역가능, 수료증 발급
등록문의: 김경열 목사 917-963-9356 (훈련원장)
단기선교: 2024. 5. 6~11일 (장소: 도미니카)
뉴욕실버미션 회장 김재열 목사 이사장 이종식 목사

목사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그리스도인의 의미

한국말로 기독교인의 뜻을 우리는 그 한문 글자를 보면 명확히 알게 된다. 기독교의 '기' 자는 '터'를 의미하고 '독' 자는 '만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고전 3장10,11절은 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초인 터가 되신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는 기초를 의미하는데 그 기초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독'을 의미하는 만아들이란 단어는 로마서 8:29절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만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의미는 "만아들 되신 예수님의 터 위에 삶을 건설하는 자"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터 위에 삶을 건설하게 되는 것일까? 헨리 나우옌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그 길을 찾았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 말씀에는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는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떡을 1) 가지사(take) 2) 축복하시고(bless) 3) 떼어(break) 4) 주셨다(give) 라는 동사이다. 헨리 나우옌은 주장하기를 그 네 동사 안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점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헨리 나우옌은 가지사(take)라는 동사를 해석하기를 "주님께서 많은 떡 가운데 성찬의 떡을 택하듯,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몸, 주님의

가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는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생은 한번은 죽는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허무한 일이다. 그러나 믿는 자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영생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감격을 가지고 항상 소망 중에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인 것이다

두 번째로 헨리나우옌은 마가복음 14장22절의 두 번째 동사인 '축복하다'는 동사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에는 자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

기를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그 집을 위해 평안을 빌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축복권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축복하고 또 축복할 때에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그곳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 마가복음 14장22절에 나오는 세 번째 동사인 '떼어'라는 break라는 동사를 살펴 보겠다. 헨리나우옌은 '떼어(break)'라는 단어를 희생이란 말로 해석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을 떼어내듯 희생적인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희생적인 삶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시대에 왜 믿는 자들이 줄어드는지를 알게 된다. 그 이유는 기독교에 희생이란 단어가 사라졌기 때문이고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독교 안에 희생이 없으니 예수님이 안 보

이는 것이다. 교회도 성도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다. 그러니 사람들은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희생이 요구될 때 감당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 시 나오는 네 번째 동사는 '주다'라는 give라는 동사다. 그 뜻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귀한 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일을 주로 하셨기 때문임이다. 내가 3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귀중한 진리 중 하나는 줄 때 열매가 있고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헨리나우옌의 말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렇듯 세상을 살 때 항상 자기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축복하고, 희생하고, 주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받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란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장성철 목사

(보스턴장로교회)



성경의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은 우리에게 해석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때로부터(ἀπὸ τότε)"(21절)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고백(16절) 이후부터를 말합니다. 그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하시는 신적(神的)이고 왕적인 모습으로 비쳐졌지만 베드로의 고백 후에는 좀 더 그리스도의 깊은 면을 드러내 보여주었고

영광 전에 자신이 먼저 받아야 할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해의 한계에 부딪혀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22절)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말했던 것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베드로에게 혼란이 온 것임이

적(超絶的) 나라로서 이전과 연속이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부패와 죽음과 고통이 없어서 다시는 개혁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개혁자나 혁명가가 아니라 창조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는 전혀 없던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갈래 길에서 베드로도 선택해야 합니다. 복된 주님의

에 있는 것으로서는 인성이나 동정도 욕심이나 욕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전인적(全人的) 부정이며, 옛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거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서 선은 없으며, 상대적인 선은 약이나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여 그 죽음을 만류했지만 영적 빛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사랑의 행위를 사탄의 조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동정도 사탄의 일인 것을 깨닫기까지는 결코 주님을 바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돕고자 행한 일도 결국은 사탄의 일이 되

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걷고자 한다면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 사는 종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세상에 속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생명을 잃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28절)는 말씀은 좀 난해한 말씀이지만 다음의 몇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해석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로써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누구나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완전히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28절)라는 범위에 해당되었던 제자들이, 오순절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권을 경험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왕권을 기대했던 제자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만간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인자가 진정한 왕권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사실상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대부분이 오순절을 경험했고, 그때부터 유한한 세속적 왕권(external-now)로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식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는 역사와는 다릅니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계시의 영원한 현재(external-now)로서, 이 시간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읽혀질 것이며, 반드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 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이 세대에 이루어져서 나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확신으로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로부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내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내가 죽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경 말씀을 붙잡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뵈고 가장 먼저 그분 앞에 나아가 앞드려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chang@bostonkorea.org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21-28



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있어서 크게 궤도를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베드로 같이 역사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직결시키고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보의 죽음은 '그리 마옵시고' 죽음을 없애, 십자가 없이 역사적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자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에 든지 아니면 자신이 죽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천국은 혁명을 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역사와 연속성을 가진 동행의 나라입니다. 즉 병들고 헐어져서 낡고 부조리와 고통이 있어서 끝없이 개혁해도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개혁자나 혁명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서 건설하는 나라는 죽기 전의 역사적 현실과는 경험이나 인식을 완전히 벗어난 초월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새 나라 창조를 가로막는 사탄이 되든지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라고 하자 황급히 나서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애정과 의리가 급하게 발동이 걸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죽는 것은 차마 볼 수 없는 일이며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적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로막는 육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적 의리나 애정은 때로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정은 곧 인정(人情)입니다. 인정이나 동정(同情), 혹은 정리(情理)나 의리 등은 인간사에는 더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의 실재에서는 아닙니다. 요단 강 이쪽 편

에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했고, 실상 베드로가 주님의 죽음을 만류한 것은 사사로운이상이기심 없이 순수한 동기에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순한 동기라고는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옛 세상의 일로서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가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이 십자가에서 부정된 후에 나온 것이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부정되지 아니한 자연인 그대로나 하는 것이 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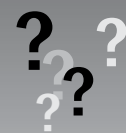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최고의 선행도 십자가에서 부정된 최악의 일보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40일간 십이 차례 보이셨습니다. 부활은 최대의 권세이고 진정한 왕은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곧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요, 그것을 목격할 제자들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함께 갔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예언을 듣게 된 제자들입니다. 즉 그 제자들은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왕권의 확증입니다. 죽음 아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종으로서 왕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할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죽기 전에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둘째 해석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주님이 왕권으로 오시는 것을 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영국과 독일교회 그리고 서구교회가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를 가진 기독교 융성 국가였는데 오늘날 왜 이렇게 교인들이 줄고 기독교가 몰락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점점 닮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 라스베가스에서 박 장로가

영국과 유럽기독교의 몰락 이유

A: 영국의 한 유명한 선교사 레슬리 뉴 비긴이란 선교사는 선교지에 20년이상 선교사로 사역하다 왔는데 영국에 돌아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교회가 영국 기독교인들이 급격히 줄어 이젠 선교사를 받아야 할 선교지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기독교인의 수가 계속 감소하여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27%나 감소하였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가 14,000명의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에게 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였는가? 질문하자 91%의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이유가 “교회가 성경을 믿는 이유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지 못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설교자들이 성경으로 분명한 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경의 권위를 지지하며 믿음을 방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진리의 분명한 가이드라인 즉, 바른길을 제시하여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No Direction) 그래서 서유럽 기독교가 파괴된 것은 교회인의 많은 지도자들이 믿음을 파괴하는 진화론적인 역사관에 타협을 하였습니 다. 그리고 이성의 빛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들어와 신학과 지도자가 좌경되고 성경을 완전 영감된 성경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가 흔들린 것입니다.

둘째, 도덕적 생활의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그 원인입니다. 영국교회는 세속과 타협하여 동성애자들을 성직자로 임명하고 성경에 위 반되는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십여 년의 세속적인 연대와 진화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경의 권위, 죄와 사망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복음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교인들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에 대해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 간 것입니다.

셋째, 영국의 데이빗 왓슨(David Watson)은 제자도(Discipleship)란 책의 서두에서 영국과 서구교회는 제자도의 희생과 성령충만을 상실하면서 쇠락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설교 맛보는 자(sermon-taster)만 가득하고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 제자도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편리한 기독교를 양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령충만을 상실하고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자 교회를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미국교회와 한국교회에도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미국 2세 교회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잘 안되는 이유는 지도자 자신부터 희생심이 부족하고 기도가 메말라 영성이 떨어졌기에 결국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배중심의 교회교육에 대한 열가지 중요한 관점에 대해, 지난 글에 다섯가지 우선적인 것을 언급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주일성수'를 생명처럼 지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배우기를 권하며, 몸으로 교회에 나오도록 교회의 예배에 몸으로 노출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모든 교육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곧 인생의 성패를 좌우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예배중심의 교회 교육은 비록 교회의 중심된 과제이지만, 철저하게 부모가 먼저 본(本)이 되어야 할 무한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영적 재목(靈材)이 될 목표로 초점을 맞출 것을 언급했다. 영적재목, 영재가 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앙생활, 자녀의 교회생활은 단순히 종교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님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은 취미활동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교회에 베풀 한 장이라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나라에 무용(無用)한 존재가 아니라 쓸모있는 일꾼

하는 것이다. 오래갈 수 없다. 처세술과 겸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앞에 두렵고 떨리는 회개의 여부이다. 겸손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러다 한 대 맞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다. 죄를 지으면서도 동시에 회개할 걱정을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심령임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자세를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대목도, 영어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태도(attitude)를 배우라는 것으로 번역한다. 쉬운 성경에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으로 설명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배우고 따르는 것은, 안팎으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 자세가 바뀌고 변화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것을 말씀안에서 가르쳐야 한다.

7.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

엄격할 정도로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강조해야 한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이기

어려움이 닥칠 때 말씀이 가장 선명한 힘이 된다. 환경에 따라, 호들갑 떨지 않고 더욱 말씀을 붙들면 살아난다. 모든 환난의 때를 지나가는 비결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말씀의 은혜 외에 달리 답이 없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구하며 믿음 가운데 잠잠히 나아가 갈 때, 주께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 것이다. 이러한 미래적 소망과 현재적 삶을 연결하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다. 마음판에 새기고, 뼈에 새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주님께 붙들어 매게 될 때에, 엄청난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 가정, 가문, 이웃, 교회까지 온전한 변화를 나타내게 됨을 본다.

교회에서 무엇하지요? 라는 물음에 "말씀을 듣지요" 라고 대답한다.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온전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고, 교회에 속한 영혼에 대한 성장과 성숙의 책임도 이루지 못한다. 말씀교육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을 애독하고 암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

쳐야 한다. 대학생이 되어도, 스타벅스 커피보다 못하게 하나님께 헌금생활하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부모와 교회가 어릴 때부터 잘못 가르친 탓이다. 대부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알고나면 잘 순종하는 것을 본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그 미래가 복되지 못하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그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도 열심인 것을 본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비슷한 아이들이 함께 그룹을 만드는 것을 본다. 서로 원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룬다. 하나님은 인생을 축복하시되,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10. 변화에 대한 믿음

교육의 목표는 '사람의 변화'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은 변화의 능력이다. 사람 참 바뀌지 않는다고 쉽게 말한다.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약해진 것이 아니다. 본질은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었느냐?를 질문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Worship & Education 3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겸손, 태도, 말씀, 드림, 통합교육-

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교육이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제 금번 글에서는 나머지 다섯가지를 강조점으로 열가지 강조점을 마무리하겠다.

6. 겸손, 내면의 성품훈련,

여섯 번째 예배중심의 교회 교육의 강조점은 '성품훈련, 자세훈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교육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습관이 되어 탁월함에 이르는 것이다.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인 클래스의 선수로 빛어낸 아버지 손웅정 안수동철의 말이 생각난다. 참된 경쟁력은 인성을 갖춘 선수가 평가될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는 인성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을 닮은 인격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의 순종을 배우며, 작게는 인상을 상쓰지 않는 것에서부터, 친절함과 품잡지 않는 것까지, 거룩한 잔소리(?)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겸손의 자세'를 강조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사랑이 교만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실패의 길이다. 자랑거리가 주님 안에서 항복하여 겸손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존재가 되고, 마침내 그 자랑이 그의 인생을 멸망으로 망치게 되는 것을 본다. 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흥할 사람과 쇠할 사람이 나누어진다. 겸손함이 기준이다. 겸손한 것과 비슷한 것을 찾으면 처세술이다. 자신을 낮추는 척

때문이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예배를 배우게 해야 한다. 본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영어권 예배에 보내지 않는다. 잘 알아듣지 못해서, 동시통역자막을 스크린에 올리면서까지,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한다. 거룩한 잔소리가 많아진다. 부모세대와 함께 예배하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다리 꼬지 말라. 팔짱하지 말라. 아멘 해라. 찬양은 입을 크게 열고 따라 부르는 것이다. 설교는 이해로 듣는 수업이 아니다. 때가 되면 알아들을 날이 올 것이다. 등등." 웃 매무새 하나가 지도 주의하면서 예배하도록 한다. 찬양팀을 하게 되면 지나치게 주목받는 웃을 입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거룩한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몸으로 배우는 것이 좋다는 것과 마음에 품은 생각이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을 절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또한 참된 영성의 훈련이 된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삶을 생키 있게 해주며, 하나님과 그의 세계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실천과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자세가 바로 영성이기 때문이다. 예배자의 간절함과 참된 영성, 그것은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다.

8. 말씀의 반복과 새김

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애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교육은 없다. 반복이 실패이다. 암기를 목표로 말씀을 심어주는 것은 바위에 발자국을 찍는 것과 같다. 부드럽고 연할 때, 말씀의 불도장을 찍도록 훈련을 하면, 마침내 건 강한 자녀들로서 자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9. 드림의 훈련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마땅한 사명과 의무가 존재한다. 물질도 마찬가지다. 내게 주신 물질은, 내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곧 사명의 포기가 되며, 사명에 담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사명의 포기는 곧 축복의 포기를 의미한다. 사명이 있음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부재(不在)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사명과 책임앞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승리하는 성도는 반드시 주의 교회와 복음의 요구에 대해 피 같은 물질뿐 아니라, 생명까지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존재는 하나님앞에서 복있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물드림을 잘 가르쳐야 된다. 욕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듯이, 자녀들도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법을 가르

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만 다치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되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문제이다. 예수 이름을 제대로 믿고 배우므로, 그 능력을 맞볼 수 있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람 그 자체를 믿기 어렵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믿어야 한다. 성경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인생이 저절로 변할 가능성은 없지만, 예수 안에서 매일 매일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변할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카멜레온 같은 변색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믿어야 한다. 구한말 선교사들의 모토가 있었다고 한다.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사람을 바꾸면 민족이 바뀐다.' 그래서 선교의 열풍이 불었고, 마침내 복음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3.1 운동 독립선언문을 주동한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세마 을 운동의 구미 삼교교회 새벽 기도 종소리가 민족을 깨웠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개인, 가정, 가문, 자손, 교회,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능력이 된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변화를 위한 교회 교육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11. 전세대 통합교육

가정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녀교육에 우선순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교회 교육도 당연히 교회 내 다음세대(Next Generation)에 대한 관심과 배려, 재정을 집중하게 된다. 미래를 기대하는 귀하고 복된 관점이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 원리를 찾아본다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어느 특정 세대를 칭하기 보다는, 전 세대 혹은 온 세대(All Generation)의 영적 부흥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 '다음세대'에 대한 압박보다는 '전세대, 온세대'에 걸친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왜 그런가? 사도 행전 2:17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녀들, 젊은이, 노인, 전세대(All Generation)가 비전과 소망을 품을 수 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교회는 가정과 같다. 자녀교육이 가정의 미래가 된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부모가운데 자식 교육에 집중해서, 부모 자녀 연히 교회 내 다음세대(Next Generation)에 대한 관심과 배려, 재정을 집중하게 된다. 미래를 기대하는 귀하고 복된 관점이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 원리를 찾아본다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어느 특정 세대를 칭하기 보다는, 전 세대 혹은 온 세대(All Generation)의 영적 부흥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 '다음세대'에 대한 압박보다는 '전세대, 온세대'에 걸친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왜 그런가? 사도 행전 2:17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녀들, 젊은이, 노인, 전세대(All Generation)가 비전과 소망을 품을 수 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davidnjon@yahoo.com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교회,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내용의 글이 SNS를 통하여 널리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덤덤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인해 안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감각적으로 무디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감각이 무디어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병환자들은 감각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손가락 혹은

발가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들이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는 것은 곧 신앙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면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흐려지게 됩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에너지가 하나님에 원하시는 것

을 향해 단순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된 스피릿으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주님이 오시기까지 교회를 향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한결같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 완수에 있습니다. 왜 대사명 완수입니까? 교회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대사명을 완수해 갈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목표로 모든 민족을 제자삼는 대사명 완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두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가라'는 '전도'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양육'입니다. 교회를 기업처럼 인식을 하면 복잡해집니다. 한때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명소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의 어떤 교회가 약 12년 전에 카톨릭 제단에 매각되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님이 가졌던 소신은 백화점처럼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성경공부들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각을 '백화점식 교회 철학'라고 규명합니다. 백화점은 철저하게 소비자에게 조정을 맞춥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갖추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백화점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모두 다 소비자의 취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개념으로 교회가 운영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의 괄목할만한 성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토록 화려하고 큰 덩치의 건물이 카톨릭에 매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성경의 원리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단순한 성경의 원리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곧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의 주제로 여기저기서 세미나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전도와 양육에 매진하는 것임을 이미 성경에 밝혀 놓으셨습니다(마 28:18-20).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목표가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어렵기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전도와 양육에 매진하라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더욱더 가열차게 실행해 나가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전도와 양육에 매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무조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하늘과 땅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무디어지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들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양육에 대한 열정보다는 기독교와 교회에 관한 번두리 이야기들을 소비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자식들 좀 찾아 달라고 독생자까지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시고 교회까지 세워 주셨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들을 양육함으로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복음과 성령으로 불이 붙어서 그 불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려는 거룩한 사명의 행진을 진군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교황 승인 한달 만에 韓가톨릭 사제도 동성 신자 '축복'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한 가운데 한국에서도 동성 커플을 위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 기도가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가톨릭 엘라이 아르쿠스(아르쿠스)에 따르면 글라렛 선교 수도회 소속 이승복 신부는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여성으로 이뤄진 커플 두 쌍을 위한 축복 기도를 올렸다.

축복 기도를 받은 이들은 2013년 캐나다에서 동성 결혼한 크리스·아리 씨와 내년 미국에서 결혼할 계획인 커플 유연·윤해 씨다. 크리스 씨는 아르쿠스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신부는 성소수자를 돌보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 예수회 소속 제임스 마틴 신부가 동성 커플을 축복할 때 사용한 기도문을 인용해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승복 신부는 "성소수자들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며 "하느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주님의 축복에서 그 어떤 이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아르쿠스를 통해 밝혔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작년 12월 18일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을 축복해도 된다고 밝혔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선언문을 공식 승인했다.

교황청은 동성 결혼은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의 교리를 훼손하는 탓에 축복할 수 없다고 2021년 밝힌 바 있으나 2년 만에 입장을 변경했다.

조엘 오스틴 교회서도 충격 사건...꿈이지 않는데 예배당 총성

미국 내에서 교회를 표적으로 하는 충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지 교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초대형 교회 중 한 곳에서도 충격 사건을 피해 가지 못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1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레이크우드교회에서 충격 사건이 발생했다. 예배를 앞둔 주일 오후에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 등에 의해 조기 진압돼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명이 총상을 입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한 현장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스페인어 예배를 앞둔 시점인 오후 1시



53분경 3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교회 주차장에 차를 타고 들어온 뒤 긴 소총을 들고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밝혔다. 여성은 당시 트랜치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5살 남자아이와 함께였다.

교회 건물에 들어선 뒤 총격을 시작했을 때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타 기관 소속 요원이 여성을 제압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함께 있던 남자아이도 총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가로 50대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레이크우드교회 조엘 오스틴 담임목사는 "65년간 이곳에 있었지만, 교회에서 충격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큰 충격을 받았다"며 "충격 사건이 오전 11시 예배 중 발생했다면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회 내 충격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5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소도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충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로부터 한 달 후인 2022년 6월에도 미국 앨라배마주 세인트스티븐스공회교회에서도 충격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범인은 예배 후 저녁 식사를 겸한 교제 자리에서 자신에게 식사를 권하는 교인들에게 직접 총구를 겨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교인 3명이 사망했다.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는 "미국 사회가 인종 간 혐오와 같은 갈등을 비롯해 정치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발현되는 분노와 불만이 교회에 대해 표출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가 직접적인 잘못을 하지 않아도 그만큼 종교에 대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덧붙였다.

NFL슈퍼볼 앞두고 목회자 55% "스포츠 베팅 비도덕적"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제58회 슈퍼볼'이 열리게 앞서 목회자 절반 이상(55%)이 스포츠 베팅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미국 내 스포츠 베팅이 본격적으로 합법화된 2018년 동일 조사 결과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미연방대법원은 지난 2018년 프로 스포츠 및 아마추어 스포츠에 도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보호 법안(PASPA)'에 위헌 판정을 내렸다. 당시 라스베이거스가 위치한 네바다주를 포함한 4개 주에서만 허용되던 스포츠 베팅은 2024년 현재 38개 주에서 합법 승인을 받았다. 미국 50개 주 중 4분의 3 이상이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시킨 셈이다.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1004명의 미 개신교 목회자를 조사해 지난 6일 발표한 결과, 목회자 55%(매우 동의 33%·동의 22%)가 스포츠 베팅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기관이 지난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일 조사(59%)에 비해 4%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스포츠 베팅이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지는 안 된다는 응답은 75%(매우 반대 51%·반대 24%)에 달했다. 2018년 설문(77%)과 비교해 2% 포인트 낮아졌다.

목회자들은 스포츠 베팅 합법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지난 한 해 스포츠 베팅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나'는 질문에 '도박 및 빚 관련 상담사역(44%·복수응답)' '성도와 일대일 대화(32%)' '같은 고민을 가진 소그룹 모임 편성(11%)' '보다 엄격한 법률 규제 지지(8%)' '설교 통해 메시지 전달(7%)' 등 응답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사역하고 있는 주에서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된다면 어떤 대처를 취하겠느냐'는 2018년 응답에 비해 절반 넘게 쪼그라든 수치다. 당시 목회자들은 '도박 및 빚 관련 상담사역(88%·복수응답)' '성도와 일대일 대화(65%)' '같은 고민을 가진 소그룹 모임 편성(60%)' '보다 엄격한 법률 규제 지지(42%)' '설교 통해 메시지 전달(33%)' 순으로 응답했다. 스포츠 베팅 합법화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을 때 생각했던 사역을 시작한 목회자의 비율은 절반 남짓이라는 의미다. 한편 전문가가 코인 NFT 복권 등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물질관·축복 관과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달 이래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드론,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나날이 등장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과연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기독교 과학기술 전문가이자 '스펙터클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 '휴대폰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12가지 방법' 등 책의 저자인 토니 레인케는 기술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



C.S. 루이스 연구소는 9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기술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Technology on the Christian Life)'을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레인케는 "기술을 '선하지 못한 인간의 창조물' 혹은 '무조건 피해야 할 악마'로 바라보는 방법은 제시했다. 이날 강의는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진행됐다. 레인케가 강조한 첫 번째 방법은 '기술의 시작점이 하나님임을 깨닫기'이다. 기술의 시작부터 발전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에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는 "우리가 흔히 '기술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전기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며 "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전기를 포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셨고, 다양한 기술이나 발명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다. 기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도구로 쓰임 받기도 한다. 레인케는 "미국 사회에 전기를 알린 신앙인 벤저민 프랭클린을 비롯해 지금껏 많은 기독교인이 기술 발전과 혁신을 주도해왔다"며 "하나님은 기술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며, 현재에도 많은 기독교인이 과학계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탐구하고 기술을 개발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인이 기술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레인케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말한다.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레인케는 "우리 모두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기독교 씨말리려는 중 "문화대혁명 이후 가장 극심"

당국의 거세지는 박해 속에서 중국 내 기독교 가정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 인식 기술까지 동원해 종교 생활을 감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교회들은 중국이 문화와 종교를 말살했던 문화대혁명(1966~1976) 이후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13일 영국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릴리즈인터네셔널(RI·Release International)에 따르면 중국이 현지 학생들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기독교인으로 드러나면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RI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박해 동향 보고서'에서 중국을 특별한 관심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간섭으로 많은 교회가 폐쇄됐다고도 전했다. 또 수년간 중국에서 어린이들의 예배 참석이 공식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공부 등 신앙을 교육하면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기독교 박해 감시기구 차이나에이드 대표 밥푸 목사는 RI에 "자녀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비난하도록 하는 데 부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직업 활동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부모가 자녀에게 기독교를 믿지 않도록 설득하지 못하면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 공중보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중국 교회가 문화대혁명 이후 극심한 박해를 겪는 데는 안면 인식 카메라 등 첨단 기술에 의한 감시 탓이 크다. 차이나에이드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안면 인식 카메라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밥푸 목사는 "모든 시민은 매일 최소 두 대의 디지털 안면 인식 카메라로 감시받는다"며 "중국 지방 정부는 시민들의 전화까지 원격으로 엿듣고 있다. '스마트 종교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 주일에 교회에 가려면 신분증과 직장 주소, 개인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85. 정인수(1876-1959)

정인수는 1876년 7월 18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28세가 되던 1904년에 하와이 노동 이민자로 수송한 후 아내를 한국에 두고 혼자서 제물포를 거쳐 일본 고베에서 코리아 선박을 이용하여 그해 11월 18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정인수는 오아후섬의 와이누아로 이동하여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하였다. 그는 이곳 농장에서 한인감리교회에 다녔다. 한국에서 장로교인이었지만 하와이에 온 후 미국 북감리교회 하와이 선교연회 감리사였던 조지 L. 피어슨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1909년 3월에 미국 북감리교회 하와이 선교연회에는 언어별로 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목회부가 따로 있었다. 흥치범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총무를 맡았다. 그는 하와이섬, 가와이섬, 마우이섬 그리고 오후우섬에 있는 한인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한인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들의 시련과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가와이 섬에는 다른 유색인종 감리교회는 없었고, 한인감리교회만 있었는데 막가웰리 외에도 엘리엘리, 가파, 리후에 한인감리교회가 있었다.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는 그중에 교세가 제일 컸다. 학습교인이 119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86명이었다. 가와이섬의 네 교회 전체 학습교인이 227명이었고, 세례교인은 158명이었으며, 하와이 네 개 섬에 유색인종 감리교인으로 학습교인은 625명이었고, 세례교인은 712명이었으므로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었다.

그해 3월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교인 제4회 미국 북감리교회 하와이 선교연회는 정인수를 가와이섬에서 가장 교세가 큰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권사로서 김봉기와 더불어 파송하였다. 막가웰리 교회는 네 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 중 세 곳에 자체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들 자체 예배당의 가치



는 총 700달러에 해당했다.

그달에 김이제 목사를 막가웰리 교회에 파송하였다. 그는 막가웰리의 네 교회뿐만 아니라 기가하와 엘리엘리 그리고 골로아에 있는 교회를 담당하는 순회 목사였다. 엘리엘리 교회와 기가하 교회에 권사가 파송되었으나 골로아에는 권사마저 파송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김이제 목사가 다른 지역을 순회 방문했을 때는 김봉기와 더불어 정인수가 막가웰리 네 교회를 나누어 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장인환과 정명운이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에게 유익하다'는 진일 성명서를 발표한 미국인 더머 W. 스티븐스를 1908년 3월에 상항에서 사살한 이른바 상항 의거가 발생하였다. 이들의 재판비용을 위하여 이듬해 5월에 기부한 정인수 등 막가웰리 거주자 중 대부분은 이곳 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최기부, 김경석, 안선화, 최종만, 공명운 부부, 김진호, 이달준, 박성백, 신치중, 박성선, 성봉준, 이경중, 김신환, 박준봉, 백수남, 장귀완, 심용이, 신태봉, 김병이, 김근신, 박명준 가정, 황봉우 부부, 이풍운 부부, 박성인, 이성도, 박명준 가정, 김상준, 양성학, 이경수, 방장룡, 신인경, 강원실, 윤태준, 김봉서, 문순서, 최성찬, 송인식, 황봉우, 김춘서였다.

1910년 3월에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된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의 통계계를 볼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할 때 학습교인은 69명이 적은 50명이었고, 세례교인은 17명이 많은 103명이었다. 교회학교는 한 개 처가 더 많은 다섯 개 처였는데 교직원 5명이 적은 14명이었으나 등록한 학생은 18명이 많은 133명이었고, 평균 출석률은 작년보다 3명이 많은 103명이었다. 교회학교 한 개 처가 신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없었던 엠위스 청년회 고등부가 개설되어 등록된 학생이 44명이었던 점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현금은 작년에 비해 14달러가 적은 58달러로 저조했다. 현금 내역을 보면 선교비가 18달러가 많은 30달러였는데 모두 해외선교부 교회현금이었고, 주일학교 현금과 내지 선교/교회확장부 교회현금과 내지 선교/교회확장부 주일학교 현금은 아예 없었다. 교육비가 3달러 적은 1달러로 모두 교회 일반 교육비였고, 어린이 기금은 아예 없었다. 주일학교 현금이 2달러 적은 1달러였는데 이는 교회를 위한 현금 이었고, 주일학교를 위한 현금은 없었다. 흑인보조회 현금은 아예 없었고, 미국성서공회 현금이 1달러 적은 1달러, 부인 내지선교부 현금은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본 교회 주일학교를 위하여 25달러를 현금주었다. 지난 1년간 해외 선교비가 30달러였고, 본 교회 주일학교 현금이 25달러인 점에서 해외선교와 주일학교에 큰 관심을 가졌음을 알게 된다. 예배당 건물은 작년과 같이 평가되었다.

1910년 3월 16일부터 4일간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제5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열렸다. 이 연회에서 두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다. 첫째, 한인교회에 엠위스 청년회가 조직됨에 그달 19일에 호랑 한인교회에서 엠위스 청년회 한인 지방회를 조직하였다. 회장에 김유순 목사, 제1부회장에 민찬호 목사, 제2부회장에 조YY, 제3부회장에 최HC, 제4부회장에 김DS, 서기에 조윤Y 그리고 재무에 한CM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한인 청년 지도자의 조직적 육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둘째는 막가웰리에 거주하던 러시아 노동자의 설교자 파송 요청이었는데 농주가 설교자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만주 할빈에서 이곳으로 이민을 온 러시아 노동자 가정은 언어가 달랐음에도 막가웰리 한인교회에 출석하였다. 그들이 할빈 러시아인 목사와 연락한 후 러시아 교회 지도자가 미국으로 오게 되어 몇 주에 걸쳐 러시아인 감리교회 개척이 눈앞에 다가왔다. 러시아인 감리교회 탄생에 한인교회가 일조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됐다.

1910년에 개최된 제5회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정인수는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권사로서 재차 파송을 받았다. 1911년 1월에 보고된 막가웰리 한인감리교회 통계를 살펴볼 때 작년에 비해 교세가 저조했다. 학습 교인은 5명이 적은 45명이었고, 세례교인은 18명이 적은 85명이었다. 교회학교수는 보고되지 않았는데 교직원은 2명이 많은 16명이었으나 등록한 학생은 21명이 적은 112명이었고, 작년에 조직한 엠위스 청년회 고등부에 등록된 학생은 19명이 적은 25명이었다. 이에 더하여 지난 1년간 두 명이 소천하여 큰 슬픔을 당했다. 그러나 현금 상황은 호조였다. 선교비가 3달러 많은 33달러였다. 작년에 없었던 내지 선교/교회확

장부 교회현금이 30달러였고, 주일학교부 현금이 작년과 같이 1달러였으며, 작년에 없었던 흑인보조회 현금은 1달러였고, 미국성서공회 현금이 작년과 같은 1달러였다.

정인수는 남세Y와 함께 권사로서 1911년에 파송받았고, 1년 전과 같이 막가웰리와 기가하 지역을 위한 순회 목사 김이제와 지방전도사 차윤중도 파송받았다. 그런데 1912년 이후 5년간의 하와이 선교연회 보고서를 찾을 수 없으나 정황적으로 볼 때 그가 계속 권사로 파송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 활동 외에도 그는 1914년 6월에 박용만이 오후우섬 가라루의 아후마누 농장에서 국민군단을 창단할 때 정인수는 군단 경리부 자부로서 활동하였다.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

오아후섬의 도시 와히아와는 하와이에서 파인애플 산업의 중심지였다. 최첨단 파인애플 회사가 이곳에 있었고, 도시 중앙에 있던 통조림 공장 주변에 여러 노동자 캠프가 있었는데 이 중에 한인 노동자 캠프가 있었다. 정인수가 이곳에서 노동하고 있었다.

1916년 2월 17일부터 4일간 호랑 제일감리교회에서 감독 윌슨 S. 루이스 목사의 사회로 미국 북감리교회 하와이 선교연회가 개최되었다. 위의 하와이 선교연회는 정인수를 오아후섬에 있는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에 서진S와 함께 지방전도사로 파송하였고, 임준호 목사는 3년째 파송을 받았다. 1915년에 지방전도사와 권사가 각각 한 명이었는데 1916년에는 지방전도사 2명에 권사 4명이 파송을 받았으므로 와히아와 한인총회와 한인감리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해 파송 받은 권사는 정문서, 송치순, 광종태 그리고 남덕도였다.

와히아와 교회는 1907년에 시작되었다. 임준수 지방전도사가 지역 공립학교 교실을 빌려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1923년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까지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예배를 드렸다. 창립 당시 와히아와는 성장하는 마을이었고, 이곳에서 한인이 노동하면서 한인촌이 형성되었다. 그는 배영학교도 개교하여 어린이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1916년 2월에 보고된 하와이 선교연회록에 따르면 학습교인이 45명이었고, 세례교인은 115명이었으며, 주일학교에 3명의 교직원이 있었고, 등록한 학생은 35명이었고, 엠위스 청년회에 등록된 학생은 25명이었으며, 한 해 동안 드린 현금이 26달러였고,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과 연료비와 전기비가 13달러였다. 그런데 1917년 연회록을 찾을 수 없어 그의 사역 열매를 확인할 수 없다.

직접적인 교회 사역 외에도 정인수는 한인 사회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1915년에 하와이 지방총회 대의원 의장으로 재직하였고, 1916년 1월에 하와이 대한인 국민회 지방총회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그해 6월에

총회장 흥한식 목사가 사퇴하여 정인수가 총회장까지 역임하였는데 이듬해 신임 총회장 안현경은 정인수의 근로를 표창하여 25달러 가격의 은잔 한 개를 선사하였다. 그리고 이화학당 하라사 교수가 중심이 되어 서울 정동 감리교회에 오르간 설치를 꾀할 때 1917년 10월에 정인수가 50여 명의 현금 명단에 거론되었다.

1918년 하와이 선교연회는 정인수를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로 파송하였다. 그리고 임준호 목사가 순회 목사로, 정문서가 권사로 파송되었다. 그달에 보고된 와히아와 교회 통계에 따르면 학습교인이 28명이었고, 세례교인이 50여 명이었으며, 주일학교가 두 개 처에 있었고, 교직원은 6명이었으며, 학생은 44명이었고, 엠위스 청년회에 등록된 학생이 18명이었다. 한 해 동안 드린 현금이 342달러였는데 이 중에 훈림비으로 30달러, 다른 목적으로 312달러였으며,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지난 1년간 378달러를 현금하였다.

1919년 3월, 제14회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정인수가 와히아와 한인감리교회 지방전도사로 다시 파송을 받았다. 그해 그는 전서 미주 금력 찬조에 손을 펼쳤고, 독립 의원을 3차례 하였으며, 북미한인교회 공의회에 5달러를 현금하여 지역 교회 선교를 넘어 사회 기부에 들어섰다. 임준호 목사, 송치순 지방전도사, 남덕두 권사와 김유길 권사와 함께 1920년에도 정인수는 와히아와 교회 지방전도사로 파송을 받았으나 더 이상 파송을 받지 못했다. 정황적으로 볼 때 정인수는 1909년부터 1921년까지 12년간 막가웰리 교회와 와히아와 교회에서 권사와 지방전도사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

이후 정인수는 직접적인 선교사역에서 떠나 사회활동과 교회활동에 관여하였다. 1921년 10월에 안원규 등 13명과 함께 1만 달러 고본금으로 호랑에 간장과 토장 만드는 제장회사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고, 1928년에는 호랑에서 조용하 등과 함께 대한 민중 통일총회를 조직하였다. 호랑 기독교 목사 이종관이 1934년 9월에 초대 대한 각 교회 목사 친목회에 정인수도 참석하였고, 이듬해 2월에는 하와이 대한인 국민회 참의원 9인으로 활동하였다. 1937년 10월에 중일 전쟁이 발발한 비상시기에 동지회와 국민회가 통합하기로 하였을 때 정인수는 박종수와 박상화와 함께 국민회 대표가 되어 동지회 대표 안현경, 이종관, 차신호와 함께 통합을 꾀하여 이듬해 11월에 연합회의를 열어 6천 동포의 대단결을 이루어냈다.

자동차 공장에서 노동하다가 호랑으로 이주한 정인수는 양복점을 경영하였다. 3남 3녀를 출산한 아내 광인순이 소천한 지 17년이 되던 1959년 1월 3일에 그는 82세로 호랑에서 허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근 마키기 공원 묘지에 안장된 아내 옆에 묻혔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오찬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금요오찬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99, www.lsgc.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오찬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 481-2779, www.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시망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절묘이 예배: 오전 1:2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0777, Fax: (714) 772-0777 1111 N. B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오찬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돌아다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s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26)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일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일예배: 오전 10:30(월-금),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사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 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월-토) 새벽예배: 오전 6:30(월-토) Tel: (213) 388-1927, www.wmcsa.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버치 사랑교회 (Sea Beach Se-Fe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버치 리저런스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선교회(교회연합회) 소속)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00(오후 4:30) 사역대상: 1. 영성사역가 2. 교회 리더십과 여성지도자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사역 3. 일함사역 4. 네트워크사역 Tel: (626) 994-9828, www.elpisfamily.com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오찬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사랑기도: 355일 24시간 온 Tel: (714) 446-6202, www.graec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주: 오후 7:20(월-토)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송고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그네 교회: 오후 1:00 TE-동요부흥성(주일):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영혼통째로 오전 10:30 목요 기도회: 오전 9:00 TE-성경찬양회(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제9장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추론한 의무들 (1)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동감 있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것을 알기 위해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있다.

1.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들

1) 우리는 교회가 받은 은혜와 간구의 영의 특권에 대해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주된 수단이다. 은혜와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로 가린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이 찌르듯 때린' 분을 영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1) 첫째, 사편 기자와 선지자들이 예언의 영으로 자유롭게 기도한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부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사 79:6, 렘 10:25).

(2) 둘째,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롬 10:13)"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 간구하는 것은 구원받을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요, 열매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원의 약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매우 크다. 이것이 교회가 재충전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다.

2) 복음 아래서 이 특권이 더 확대된 것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성령은 위로부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졌다.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약 시대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그 은혜의 범위가 더 크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으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 구약 시

대보다 신약 시대에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다. 육체와 육신의 규례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도문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해서, 의심할 여지없이 더 큰 은혜의 간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사는 신자들이 형식적인 기도문이 필요하며, 그것을 필요로 해야 하는가? 결코 아니다. 율법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과거에 성령의 이슬은 오직 이스라엘 땅과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 난 후손들에게 내려졌지만, 이제 성령의 소나기는 모든 민족,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수하며 그 이름을 외치는 모든' 민족들에게 부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부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시온 산에서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유효적(effectual)인 사역을 통해 그분이 높여지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야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말 1:11)라는 위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은 '자신을 영원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가정에도 적용되며 우리의 모임에도 적용된다. 각자의 가족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가정은 형식이 있다고 해도, 줄곧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성령은 온 세상에 있는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신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간다'(엡 2:18).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의 확장을 통해 우리에게 정당한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신다.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으므로,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은사를 무시하는 죄를 짓게 된다

(1) 첫째, 그들이 이 은사의 가치를 절하시키고 찾거나 획득하려고 하지 않을

때이다. 그 결과 이 은사는 완전히 무시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값진 유익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2) 둘째,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무시로, 부지런히,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이 은사가 주는 목적과 그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왜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기도가 있을 때나 필요를 느낄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하며, 모든 죄를 이기며, 모든 선한 것을 획득하며, 매사에 순종하는 경향을 하게 된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과 좌절들을 경험하게 된다. 올바른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며,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이것을 가로막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축복은 바로 이 기도에 달려 있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자녀로서 기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은혜와 간구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가 주시는 은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죄가 되는가! 이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 영혼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경계를 받았던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 5:19)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운 도우심을 경멸하는 것에 대해 어찌 책임을 지겠는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내적으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죄를 짓는 것인가? 자신이 배운 대로 영적인 관심이 없이 오직 양심의 평화를 얻기 위해 기도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도대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도우심을 무시하며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당신은 계속 영혼에 손해를 당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겠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유혹들과 위험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간구의 영의 도우심을 힘입는 이런 기도를 요구받고 있다.

younsuklee@hotmail.com



이영숙 박사의 성품치유 여정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자존감을 높이는 비결, 기쁨의 성품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 필자가 '자녀 상담'과 '교육 칼럼'을 게재할 때의 일입니다. 가장 많은 상담 주제는 "자신감 없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하지는 대로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길러 줄까요?"

"우리 아이는 매사에 소극적이예요. 어떻게 해야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아이가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신감 없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부모님이 일대일로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그 아이가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알려주고 함께 놀아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변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이며 의욕 있는 아이로 바뀔 겁니다."

왜 사람이 답이 없을까요? 자신감은 나 자신, 즉 내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자존감이 있어야,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자존감이 차곡차곡 쌓인 아이들이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자존감은 기쁨의 성품으로 시작됩니다.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저는 성품을 다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좋은나무성품학교에서는 기쁨을 어떻게 소유하고 기쁨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연습시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이사야 43장 4절)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 아이들의 내면에 자존감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기쁨'을 소유합니다.

기쁨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그것도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부정을 선택하고, 또 다른 사람은 기쁨의 태도로 긍정을 선택하지요. 그 한 번의 선택들이 모여 자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많은 지식을 넣어 주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기쁨'의 성품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쁨의 성품을 배우고 '어려운 상황에서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 할 수 있다면, 자라서 부모의 보좌 없이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인생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성품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할까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속상함을 확 쏟아냈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쁨니까? 그러고 나면 잠깐은 시원할 수 있지만, 우리의 평강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모도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기쁨의 5-2-5 법칙'입니다. 화가 벌벌벌 나고 속상해서 피우고 싶을 때, 천천히 숨을 5번 들이마시고, 2번을 참고, 천천히 5번 내쉬어 보세요. 내 마음을 조절하면서 온 가족이 기쁨의 성품을 연습해 보세요.

때로는 이런 기쁨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 하게 하는 방해물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입니다.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칼럼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로 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좋은성품 부모교육, 좋은성품 자녀 세우기, 좋은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좋아성(BSE)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시니어 목회, GTMU(www.good-treemission.org) 캘리포니아 ECE(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전문교사 양성과정 등에 대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 goodtreeusa@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한문의 '생명'이란 글자는 < 살라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생

개인은 물론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락반이 있다면 아직 많은 기회들을 보장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흔히 은퇴하면 모든 소망이 다 끝이 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내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기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회를 박탈당한

된 병자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GBC 2024 재난 & 난민을 위한 자선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GBC 2024 재난 & 난민을 위한 자선콘서트 성황 '손경민 목사와 함께하는 The 은혜워십팀'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이영선 목사)이 주최한 2024 재난 & 난민을 위한 자선콘서트가

에서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손경민 목사와 함께하는 The 은혜워십팀이

며 "GBC에서 개최한 이번 콘서트가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사우스베이목사회 회원들이 2월 정기모임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우스베이목사회 알츠하이머 예방에 관한 특강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김우준 목사)는 지난 2월 7일(수) 오전 8시

인소망교회)가 기도하고 강순영 목사(전 JAMA 대표)가 "이

와 온갖 분야에서 세계 제일가는 강대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의 나라



엄영민 목사 송별 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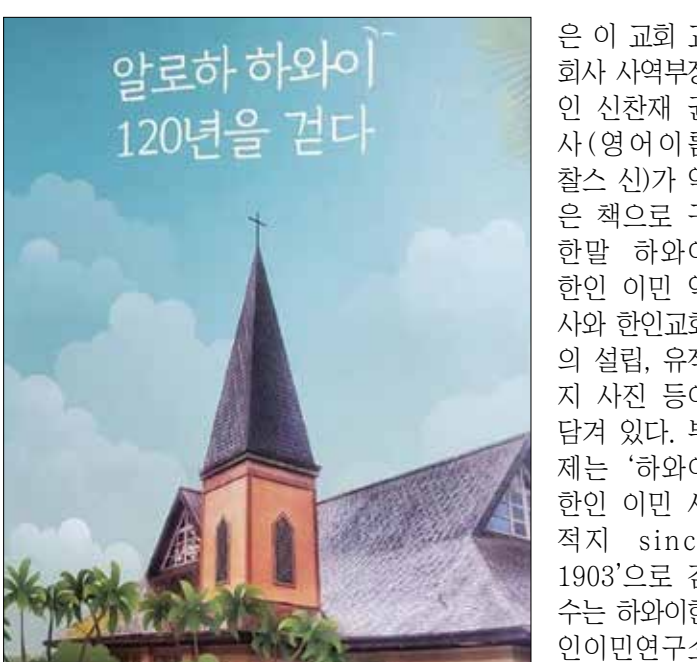
캄보디아선교사로 가는 엄영민 목사 송별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약속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 2월 정기모임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는 엄영민 목사

하셨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작은 약속을 이루게 하신

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17년 동안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알로하 하와이 120년을 걷다' 출간



알로하 하와이 120년을 걷다

해의 최초의 한인교회인 하와이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은 이 교회 교회사 사역부장인 신찬재 권사(영어 이름 찰스 신)가

승만은 1913년부터 1918년까지 이 교회 지도자(탁사와 한인

'다음세대를 위한 소중한 필수적 서명운동'

(1면에서 계속) 이와 관련 지난 7일 오전 10시

세우지 않도록 기독교인들과 보수 시각의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것이다. 기도의 불이 각 교회마다 타올라야 하고, 서명운동에

이 중요하다"며 "최소한 한인커뮤니티에서 5만5천~7만개의 서명

지카운티는 OCvote.gov에서 신청가능하다. 한글도 가능하다

이 책을 엮은 신찬재 사역부장은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제37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월 19일(월)부터 3월30일(토)까지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7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886-4040

뉴저지초대교회, 사순절공동체성경읽기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는 2월 17일부터 3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본관 203호에서 사순절 공동체 성경읽기를 개최한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통독한다.
 ▲ 문의: 박미숙 권사 201-638-1670

2024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1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은 2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에 2024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1차 준비기도회를 뉴욕베데스다교회(김원기 목사 시무)에서 연다.
 ▲ 문의: 718-279-1414

아름다운교회, 마미앤미 봄학기 등록
 아름다운교회(담임 제재광 목사)는 3월 7일(목)부터 5월 23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10주간 마미앤미 봄학기를 개최한다. 나이는 18개월부터 48개월까지이며 등록비는 20불이다. 등록은 <http://tinyurl.com/afbk5dpr> 하면된다.
 ▲ 문의: 박선자 전도사 apcmommyandme@gmail.com

벤틀교회, 소망 유치원 여름 캠프
 벤틀교회(담임 백신중 목사)는 7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소망유치원 여름 캠프를 개최한다. 연령은 3-5 (Birthdate: 9/2/2018-9/1/2021) 이다. 등록비는 \$750이다.
 ▲ 문의: hccc@bethelchurch.org 443-538-8745

아름다운교회, 썸머캠프
 아름다운교회(담임 제재광 목사)는 7월1일(월)부터 8월9일(금)까지 6주 동안 썸머캠프를 개최한다. 대상은 3세-9학년(2024년 9월 기준)이다. 온라인등록은 2월 26일(월)에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tinyurl.com/ydtcf5as> 을 참고하면 된다.
 ▲ 문의: 516-349-5559

한무리 여름학교 등록
 한무리교회 (담임 박상돈 목사)는 2024 한무리 여름학교를 7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개최한다. 등록은 2월 17일(토)부터 시작되며, 등록원서는 한무리교회 웹사이트 hanmoory.org 또는 교회학교 Summer School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문의 및 등록 E-mail: hanmooryss@gmail.com 디렉터 김지현 914-539-1188 부디렉터 김선미 917-951-5761

여호수아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여호수아장로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이며 뉴저지 중남부에 위치한 여호수아장로교회에서 제 2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 요건은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인정하는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목사 안수 후 Full time 으로 목회 경험이 3년 (담임목사/부목사 포함) 이상인 분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이중언어 설교(한국어/영어) 및 소통이 가능한 분 (영어 목회에 비전이 있는 분) △목회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다. 제출마감은 2024년 3월 31일이며, 제출처는 jpc1326@gmail.com이다.
 ▲ 문의: cbrycerim65@gmail.com,청빙위원회 임종호 장로

뉴욕장로성가단 2024 신년감사하례 및 단장이·취임식 11대 단장 송윤섭 장로 취임

8회가 뉴욕장로성가단 신년 감사하례 및 단장이·취임식이 2월 8일(목) 오후 5시 디모스 연회장에서 열려 10대 단장 전병삼 장로가 이임하고 11대 송윤섭 장로가 취임했다. 1부 새해감사예배는 인도 부단장 장세활 장로, 대표기도 증경단장 김재관 장로, 성경봉독 서기 김창남 장로, 특송 뉴욕장로성가단(지휘 이다나엘 장로), 말씀과 축도 허연행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연행 목사는 "여호사밧 작전으로(역대하 20:20-23)"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허 목사는 뉴욕을 영적으로 지키는 두개의 기둥과 같은 장로성가단과 권사선교협창단을 격려했다. "젊을 때와 다르겠지만 최고인 부기인 찬양이 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찬양이다. 찬양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승리하는"

여호사밧 작전"으로 새해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며 나아가자"라고 전했다. 2부 단장이·취임식은 사회 총무 김상규 장로, 기도 증경단장 손성대 장로, 축가 테너 조동현 장로, 이임사 이임 단장 전병삼 장로, 취임사 취임 단장 송윤섭 장로, 임원소개 이사장 박용기 장로, 직전 단장에서 공로패 증정, 정기연주회 준비위원장 정권식 장로에게 감사패가 증정됐다. 단장으로 취임한 송윤섭 장로는 취임사를 통해 "단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다"라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 이어 축사는 뉴욕교협 회장 박태규 목사와 뉴욕목사회 회장 정관호 목사, 격려사는 에베에셀선교교회 최창섭 목사가 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신년감사하례 및 단장 아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한국 NGO 푸른나무재단 & 유엔 청소년 대표단 사진 촬영했다

뉴욕가정상담소 YCPT, 한국 청소년 NGO 푸른나무재단과 교류

뉴욕가정상담소(이지혜 소장) 청소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YCPT)은 2월 9일(금) 저녁 뉴욕가정상담소 교육관에서 한국 NGO 푸른나무재단(김종기 설립자)과 유엔 청소년 대표단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가정상담소 YCPT는 고등학생들의 리더십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약 40명의 10대 청소년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푸른나무재단은 한국 최초로 학교 폭력 문제를 시민 사회에 공론화한

청소년 NGO로 매년 2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해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있다. 이날 뉴욕가정상담소 YCPT 및 한국 청소년들은 학교 폭력을 비롯해 YCPT가 옹호 활동을 펴고 있는 10대 데이트 폭력, 성폭력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기사제공: 뉴욕가정상담소)



뉴저지한인은퇴목사회, 정기모임 사진

"일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목서들" 뉴저지한인은퇴목사회, 정기모임

뉴저지한인은퇴목사회(회장 하사무엘 목사)는 2월 8일(목) 오전 11시 뉴저지영광장로교회(담임 정광희 목사) 교육관에서 2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정창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기도 신성능 목사, 찬양 은목찬양대, 설교 김선량 목사, 광고 조영길 목사, 축도 김선량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량 목사는 '주님의 마음을 (빌 2:5-11)'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바울은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예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삶의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예배 후 2월 생일축하와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일을 맞이한 신성능 목사와 주진경 목사를 위해 김시환 목사가 기도했고 결혼기념일을 맞는 정창수 목사 부부, 장석진 목사 부부, 이기석 목사, 이동희 목사 부부를 위해 회장 하사무엘 목사가 기도했다. 회장 하사무엘 목사는 "일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목서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정기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 소중한 모임은 외로움을 겪는 은퇴목사들의 귀한 시간이다"며 "이 모임을 섬길 교회나 목서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는 973-342-6358(회장 하사무엘 목사) 또는 201-364-8075(총무 조영길 목사)로 하면 된다. 내달 정기모임은 7일(목) 오전 11시에 뉴저지영광장로교회 교육관에서 있다.
 (홍현숙 기자)

사역 현장의 "허용된 죄들"

(2면에서 계속)
4. 불평한다

어둠에 맞서려면 편안함, 안전, 편의성, 지위 등을 희생해야 한다. 불평은 해로운 습관이 될 수 있다.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는 게 얼마나 쉬운가? 감사가 부족한 사람, 문화에 얽힌 죄 또는 만연한 불의를 보며 한탄하는 건 어렵지 않다. 너무 빠른 진실처럼 들릴지 몰라도 불평하는 사람의 진짜 마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더 잘 안다'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에 의문을 제기한 무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요 6:43-44).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5. 과로한다

허용을 넘어서 존경까지 받을 만한 이 죄는 근면과 노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메시지는 참혹하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암묵적인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나 자신과 나의 방법에 의존할 때, 우리의 목회는 자립으로 변질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은 안식과 성령님을 뒷전으로 미룬다. 사역으로 인한 탈진은 현실이며, 동시에 하나님만이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

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그의 이름으로 사역하도록 파송하신 후(막 6:7-13), 그들은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예수께 고했다"(30절).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31절)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혼자 계시는 습관이 있었다(마 14:13).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따라서 주어진 한계에 따라 섬기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허용된 죄를 회개하기

이런 죄를 나열하는 건 사실 내가 스스로 내 속에 오물을 넣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 역시 이 모든 죄에서 유죄이다. 이런 죄는 짓기 쉽다. 가면을 쓴 이런 죄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활보한다. 그냥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존경받을 만하다는 느낌까지 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독과 다르지 않다. 각각의 죄는 독도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모든 하나하나의 죄가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동시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상기시킨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숨은 죄를 회개하고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야 한다(히 12:1-2).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입의 말 그리고 모든 마음의 목상이 그분 앞에 열납되기를 바라야 한다(시 19:14).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오로지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길 간절히 바란다.

by Jen Oshman, TGC

피종진 목사 2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010-5255-7777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Godbless3377@gmail.com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1(목) 저녁 2(금)~3(토) 인천 물면동산교회(김천영 목사) 010-3721-4316
 천안 위대한약수교회(윤재민 목사) 010-3254-0691
 주최: 솔로몬 지도자 협의회

6(화) 저녁 대구 주강교회(조예림 목사) 010-8908-1487
 주최: 그루터기 부흥사회(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송추 반석기도원(원장 고관능 목사) 010-2391-3004
 서울 강남순교회(오승준 목사) 010-3942-8434
 창원 은혜교회(피은혜 목사) 010-4586-8642 /
 행정 김반석 목사 010-2083-8644
 김포 강림교회(조경숙 목사) 010-8222-1992
 서울기독교 교육방송국(사장 김규임 목사) 010-4242-5022
 한국기독교회관 1308 주최: 민족복음화운동협의회
 (대표총재 우영순 목사, 대표회장 박원복 목사, 준비위원장 임동철 목사) 010-7407-9958
 구리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870-5642
 대전 북부제일교회(김재홍 목사) 010-9068-9197
 국제신학교(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템트메이커신교회 강남센터 3층(대표회장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용산 비전센터 기도성회(김사명 목사) 010-3621-3383 신세기한강빌딩 5층
 군산 아름다운교회(최영명 목사) 010-2953-2996
 주최: 그루터기 부흥사회(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서울 강남반석교회(강사명 목사) 010-8331-3431
 서울 은진힐링국제교육원(총장 장남철 박사) 010-2252-0675

25(주일) 밤 26(월) 27(화) 28(수) 29(목) 제236차 해외성회(236th Overseas Assembly)
 출국 필리핀(Philippines) 중부 루손지역 원주민목회자세미나(대회장 윤성오 선교사)
 필리핀(Philippines) 클락지역 원주민성회
 필리핀(Philippines) 루손지역 교회설립(개척) 성회 귀국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남가주연합기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미스바로 모이라” ... 남가주연합 기도대회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군, 침묵해선 안돼!”

남가주연합 기도대회(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가 7일 오전 10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대회는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미영 전도사(주님의영광교회)의 인도로 안현숙 목사(CBS 중보기도팀)기도, 신승훈 목사 설교로 진행 됐다.

신승훈 목사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한다’(겔 33:1-7)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은 파수군에게 전령이 왔으니 나팔을 불라고 하신다. 우리가 왜 여기 모여 모임을 하는가?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처럼, 세례요한이 바른 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 나팔을 불어야 한다. 지금도 늦은 감도 있다. 왜 주민 발의안을 만들게 되었는지 배경을 잘 알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침묵해선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군의 사명을 주셨다.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동참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캘리포니아가 변화하면 미국이 변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캘

리포니아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강태광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날 기도회는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소서!’(김요셉 목사/청교도 기도동역자), ‘중보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현민정 목사/은혜한인교회), ‘미국, 남가주에 부흥을 허락 하소서’(조진용 목사/OC 교협 총무), ‘주민 발의 서명운동을 인도하소서’(김영일 목사/더섬기는교회), ‘미국 선거를 축복하소서’(이도한 목사/중현선교회), ‘전쟁 지역에 평화를 허락하소서’(이원석 목사/OC목사회), ‘선교지와 선교사를 축복하소서’(김철민 장로/CMF선교회),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김미영 전도사) 등의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구했으며 이날 모든 순서는 남강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 기도회는 4월 4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성자 기자)

제10차 OC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연다

“기도로 한해를 시작하는 것은 청교도신앙에 입각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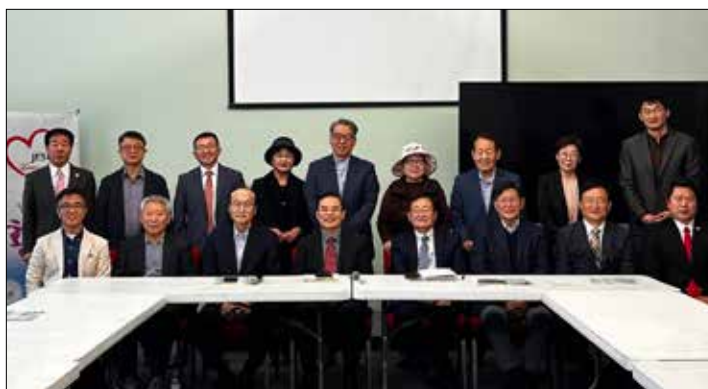
제10차 OC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17일(토) 오전 7시20분에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무섭게 타락해가는 미국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교계와 한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만 목사(OC교협회장)는 “이번 조찬기도회는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교계단체, 기관장, 그리고 정치인 등을 초청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하례식”이라며 “특별히 이날 캘리포니아 어린이들의 평생을 좌우할 성경체성 훈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청원서에 서명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한기홍 목사는 “조찬기도회를 해마다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며 “그날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교계를 연합하여 기도하며 한해를 시작하는 것은 청교도신앙에 입각한 모습이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OC교협이사장)는 “조찬기도회가 10년 동안

함께한 것은 축복이다. 반성경적 세계관이 팽배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조찬기도회로 인한 축복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들이 동성애에서 보호하는 Protect Kids movement 라는 목표가 있어 기도회가 더 의미 있다”며 “하나님나라의 모든 일을 거저씨운동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작은 운동을 통해 큰일을 보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 하셔서 이번 조찬기도회로 인해 캘리포니아가 변하고 미국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기도회는 200여명이 참석하여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이날 작년 연말 OC전도회연합회에서 개최한 선교사자녀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금 신청을 했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박준호 기자)



제10차 OC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를 위한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장종택 목사가 나성순복음교회 교인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나성순복음교회 장종택 목사 찬양간증집회

“주님은 종교적인 행위를 좋아하지 않으셔”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찬양사역자 장종택 목사 찬양간증집회를 9일(금) 오후 7시30분에 개최했다. 이날 장종택 목사는 “예수님을 세상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어제 그분과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드라마, 정치, 경제에는 관심이 많지만 예배당에 오면 사랑한다는 그분과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러니하다”며 “성경에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임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처럼 마음은 멀리 떠나있으면서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혹시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하나

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오렌만이라는 인사를 하는 거 같아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며 “운동 돌아다니면서 주의 일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종교적인 행위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주의 일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갔으면 한다. 기도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목사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일하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다윗처럼’ 등을 불렀다. 이날 집회는 진유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인타운 시니어 및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술수업을 받은 이들이 전시회를 가졌다

서부교계 게시판

감사한인교회 선교부흥집회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선교부흥집회가 오는 23일(금) 오후 7시30분에 개최된다. 이번 선교부흥집회의 강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추기경 선교사이다.

▲ 문의: (714)521-0991

토렌스조은교회 사순절 부흥회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 사순절 부흥회가 ‘예수님을 따라’라는 주제로 21일(수)부터 3월20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거행된다. 일정은 21일 고정민 이사장(복음의전함), 28일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3월6일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13일 국윤권 목사(중현선교회), 20일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

▲ 문의: (310)370-5500

황금기 난타 선교팀 모집

선미니스트리(대표 김정환 선교사)는 황금기 난타 선교팀을 모집한다. 미국최초로 국악종합예술 선교팀으로 활동하게 될 황금기 난타 선교팀 모집인원은 6-8명이며 연습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선미니스트리(6800 Orangethorpe Ave, #A, Buena Park, CA)에서 한다.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모집인원 마감은 24일까지이다.

▲ 문의: (714)350-6957

JAMA 청소년리더십컨퍼런스(YLC) 참가자 모집

JAMA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YLC)가 오는 7월 1일(월)~5일(금)까지 텍사스에 있는 JAMA 글로벌 캠퍼스(22392 FM 16 W., Lindale, TX)에서 열린다. 차세대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적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계획된 획기적인 기독교 리더십 컨퍼런스인 YLC은 금년 가을 9학년부부터 12학년으로 입학하는 고등학생들이 대상이다. 조기 등록은 2024년 3월 15일까지이며 얼리버드 요금은 음식과 숙박이 포함된 499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s://www.jamaglobal.org/ylc2024>

▲ 문의: 전화: (903) 804-4016, info@jamaglobal.com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창립 51주년 부흥회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김준섭 목사) 창립 51주년 부흥회가 23일(금)부터 25일(주일)까지 ‘예수님, 기쁨,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강사는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이다.

▲ 문의: (512)454-1727

나성영락교회 블레스 USA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미주한인동포에게 복음의 축복을 전하고 미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블레스 USA가 18일(주일) 3부 예배시간에 갖는다. 블레스 USA에는 고정민 장로가 간증하게 된다.

▲ 문의: (323)627-8071



캐서린 엄 소장이 입법 보좌관인 Micheal Espinosa 와 LA시 여성지위위원회 커미셔너 선서식 후 기념 촬영하고있다.

한인가정상담소 소장 캐서린 엄

LA시 여성 지위 위원회 커미셔너 임명선서식

로스앤젤레스시는 지난 1월 31일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엄을 여성지위위원회(LACSW)커미셔너로 선서식을 통해 임명했다. 1975년 톰 브래들리 시장에 의해 설립된 여성지위위원회는 로스앤젤레스 커뮤니티 내 여성들의 일반적인 복지 증진과 모든 여성의 시정부 내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목표로 한다. 캐서린 엄 소장은 이번 임명에 대해 “이 기회를 주신 캐린 베스 시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로스앤젤레스시 여성지위위원회에 합

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위원회의 임무는 지난 15년 동안 KFAM과 KFAM의 폭력 피해 부서에서 해 온 미션과 일치한다. 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캐서린 엄 소장은 2009년부터 한인가정상담소 어린이 영양프로그램 매니저를 시작으로, 개발(Development) 팀 매니저를 거쳐, 2016년 부소장직을 맡았고 이어 2020년부터 소장직을 맡아 기관을 운영해왔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시니어센터에서 미술 배워 전시회 개최

LA한인타운에 있는 ‘한인타운 시니어 및 커뮤니티 센터(KACC)’에서 미술수업을 받은 이들이 작품을 모아 리얼리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 KACC는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로 이곳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시니어들의 문화생활을 돕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40분부터 4시30분까지는 미술반이 열리는데 여기에 참석

했던 예비화가들의 작품전시회가 지난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리얼리 갤러리에서 열렸다. 전시회에 참가한 이들은 송윤순, 로즈한, 함병일, 박인경, 김순자, 오민애, 홍준표, 헤리슨, 이복련, 장수안, 오봉애, 김정옥, 백재윤, 안경자 씨 등이다. KACC 주소는 965 S. Normandie Ave Ave L.A.CA.90006, 문의 전화는 (213)387-7733 (정리: 박준호 기자)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콜링콘서트에서 유은성 김정화 부부가 간증하고 있다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콜링콘서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하나님의 풍성한 공훈 임해”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콜링콘서트가 토렌스선한목자교회(담임 이승혁 목사)에서 지난 4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찬양사역자 유은성 전도사와 그의 아내인 김정화 배우가 강사로 나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있었던 기아대책 사역과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유은성 전도사는 “지난 2023년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작년 이맘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주신 배려의 시간이었다. 아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러한 상황을 알렸더니 기사화가 되었고, 인터뷰 요청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동상이몽에도 출연하게 되었고 다니엘기도회에 강사로도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나와 아내가 책 집필도 하게 되었고 9년 만에 음반출시도 하게 되었다”며 “미국에 오기 2주전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아봤는데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으며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내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라고 간증을 들려주었다. 한편 배우 김정화 씨는 배우 정태우 씨의 권유로 기아대책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는 “정태우 씨가 MBC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울타리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에서 다규멘터

리를 제작하게 되는데 함께 가자는 권유를 받고 떠나게 되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아그네스라는 6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에이즈에 걸린 아이였고 부모는 이미 에이즈로 사망하여 이모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는 내용이었다. 당시 미혼이었던 나 자신이 엄마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몰랐지만 아그네스와 함께하는 그 시간동안 엄마가 되어 필요를 채워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심했던 나 자신이 그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 몰랐지만 막상 아그네스와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웃기는 순간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김정화 씨는 “감사한 것은 아그네스가 20살이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5월이면 엄마가 된다. 유은성 씨와 함께 우간다 에이즈 퇴치를 위해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28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유은성 김정화 부부는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 울고 있는 누군가도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내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라고 간증을 들려주었다. 한편 배우 김정화 씨는 배우 정태우 씨의 권유로 기아대책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는 “정태우 씨가 MBC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울타리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에서 다규멘터

(박준호 기자)



'신사참배 거부한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숨결이 살아난다

주 목사 수교 80주기 맞아, '생가 전시관' '수난 기념관'

‘일사각오’ 주기철(1897~1944) 목사 수교 80주기를 맞아 한국교회 주 목사의 신앙과 순교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사역을 펼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익식 목사) 총회는 경남 창원에 ‘주기철 목사 생가 전시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생가 전시관은 예장 통합(총회장 오정호 목사) 총회가 오는 11월 경북 의성에 건축하는 ‘주기철 목사 수난 기념관’과 함께 주 목사의 순교 신앙을 널리 알리게 될 전망이다.

주 목사는 일제강점기 부산 초량교회와 마산 문장교회에서 신앙운동과 계몽운동을 벌였다. 평양 산정현교회 부임 후에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섰으며 이로 인해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일제의 잔혹한 고문으로 순교했다. 예장통합 경

남노회(노회장 이상근 목사)와 주기철목사관사회(이사장 이삼태 목사)는 주기철목사기념관(기념관) 옆에 생가 전시관을 건립해 14일 개관 예배를 드린다. 경남노회는 2015년 주 목사가 태어나고 자란 경남 창원 진해구 웅천동에 기념관을 완공한 이래 기독교인은 물론 주민들에게 그의 순교신앙을 알려왔다. 이후 생가도 복원하면 좋겠다는 교계와 관람객들의 의견을 수용해 생가를 본뜬 전시관을 건축하게 된 것이다. 김관수 기념관장은 “9년 전 기념관을 건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 목사님을 존경하는 경남노회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금으로 생가 전시관이 완공됐다”며 “내부 시설은 창원시 후원 받아 꾸며지며 시에 기부 채납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생가 전시관은 38.61㎡(약 12평)로 방 2칸과 마루, 부엌 등으로 구성된 한옥 모습이다. 각 방에는 ‘실교를 준비하는 주 목사’와 ‘독립운동을 위해 태극기를 그리는 주 목사’ 모습이 모형으로 제작됐으며 마루에는 그의 삶을 전하는 디지털 영상장치가 마련됐다. 야외에는 벤치에 앉아 있는 주 목사의 동상이 놓인다. 김 관장은 “오는 4월 순교 80주기 기념식과 제3회 소양학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기념관에 1만8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생가 전시관 개관으로 더 많은 이들이 주 목사님의 고귀한 정신을 함께 느끼고 기억할 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장통합의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주기철목사 수난기념관사업회(회장 신철성 장로)와 의성주기철수난관사업후원회(회장 오정호 목사)가 건축하고 있는 수난 기념관은 주 목사가 육교를 치른 옛 의성경찰서 터에 지어져 의미가 있다. 의성군의 후원과 한국교회 모금을 통해 기존 의성경찰서 건물 두 채는 예전 모습대로 복원하고 그 옆에 3층짜리 신축 건물을 짓는다. 기념관 사업회 사무총장 추성환 목사는 “목숨 걸고 신사참배에 맞서며 하나님과 나라를 뜨겁게 사랑했던 주 목사님의 생애가 잘 나타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단기선교 열정 절반이라도 군선교로”

감리교군선교회, 제25차 총회 및 회장이·취임 감사예배 드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청년선교와 민족 복음화의 황금어장인 군선교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기감 총회 인준자 관인 감리교군선교회(이사장 박주환 목사)가 13일 서울 성북구 미아동교회(임철수 목사)에서 진행된 제25차 총회에서 2023년 업무보고와 감사 및 재정보고 2024년 업무계획 보고 등이 이어진 가운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군선교 상황에 대한 발언이 터져 나왔다. 선교회 지도위원인 장태봉 목사는 “군목 활동이 위축되고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며 “민간교회에서든 군선교 활동에 대한 후원이 식어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또 “예전 군대는 작은 초코파이만 줘도 장병들이 좋아했고, 많이 모였다”며 “이제는 지휘관

이 교회 가지는 말만 해도 ‘종교 편향’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채성기 서울남연회 감독은 “교회가 군선교를 청년 복음화의 황금어장이라고 말하면서도 소홀하게 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가 해외 단기선교에 쏟는 관심의 절반이라도 군선교로 돌린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동화 기감 선교회 총무는 “요즘 군병력이 줄고 부대들이 많이 사라지는 등 사역 환경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군선교회가 청년선교와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엔 변화가 없다”며 “한국교회가 감소세를 겪는 가운데 군선교회가 사역에 보다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 후에는 군선교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열렸다. 회장으로 취임한 임철수 미아동교회 목사는 “군선교를 위해 미려하나마 힘을 보태오던 중에 중책을 맡았다”며 “훌륭한 선배들이 개척한 길을 열심히 따라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임 목사는 군종44기로 육군에서 복무했고 감리교군선교회 감사와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미아동교회는 2019년부터 매년 7사단 신병교육대 세례식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단 해제 위해 공금 손대... 성락교회 내부분열 점입가경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합동·고신 등 한국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된 서울성락교회의 담임목사 김성현씨가 이단 해제 목적으로 교회 공금 4억원을 청탁금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 측과 김씨를 반대하는 성락교회 교회개혁위원회(교개혁)의 내부 분열이 심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서울성락교회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관련

부정 청탁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지낸 윤모씨에게 교회 공금을 부정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기총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윤씨에게 김씨는 3차례 걸쳐 4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재판이 이뤄졌다. 법원은 부정청탁을 받은 윤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했으며 김씨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앞서 서울성락교회는 김기동

(1938~2022)씨가 담임목사로 있을 당시 기독교한국침례회를 비롯해 예장고신·합동·통합 등 한국 주요 교단으로부터 신론기독론 계서론 창조론 인간론 사탄론 등의 사유로 이단으로 분류된 곳이다. 교회는 현재 두 진영으로 갈라선 상황이다. 2016년 교개혁 진영 측은 당시 담임목사였던 김기동의 성추행 등 여러 의혹과 잘못에 대한 사과와 교회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김씨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단순 의혹일 뿐이다. 사실관계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교회는 현재도 교개혁과 김씨 측으로 분열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씨 측 내부에서 도 분열이 일어났다. 성락교회혁신재건위원회(재건위)가 내부에 들어섰는데, 재건위는 김씨의 독단적 행동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면서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교개혁과의 분열이 봉합되기 전에 김씨 측에서는 또 다른 분열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지진으로 황폐한 일본 땅에 한국교회 사랑 전달”

한교봉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방문해 후원물품 전달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대표 단장 김태영 목사)이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해 상해를 살피고 2억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교봉은 지난 8~10일 노토반도 구호를 위해 57개 현지 교회가 연합해 만든 노토헬프(NOTO HELP·대표 오카다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가 모은 분죽 3만팩과 방한복 250벌 등을 전달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지난달 1일 규모 7.6 상상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카다 목사는 “지진 당시 새해 첫날이

라 많은 사람이 집 안에 머물고 있어 많은 사망자가 생겼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지마와시교회는 사택과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고 오지마와 공동교회는 건물이 기울어져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겪고 있는 등 교회의 어려움도 크다”며 “현재 급수시설이 파손돼 식수 제공이나 화장실 오수 처리가 되지 않아 다음 달까지 자원봉사자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에 머무는 한인 선교사와 성도들은 7개 교회를 베이스캠프

로 삼아 모금과 봉사로 피해지역을 돕고 있다. 조영삼 일본선교사는 “집 밖을 나올 수 없는 고령자들에게 식사를 전달하고 있는데 봉사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성인용 기저귀나 위생용품들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일본어가 가능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는 5월 이후 단기선교를 와서 이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조 선교사는 “단기선교사역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봉사자를 위한 센터를 확보하고 있다”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역 주민들을 섬긴 교회들이 부흥하고 든든히 섰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도 일본교회들이 연합해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김철훈 한교봉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가 수도와 전기 등 제반 시설 복구에 집중하고 있어 피해자를 위한 세세한 구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교회 봉사단은 NOTO HELP와 함께 ‘한국교회 일본 노토반도 재난 지원네트워크’를 만들고 다각적인 협력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성경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연합기도: 매주(목)오후 4:00-7:0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현):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현):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현):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현):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전 10:00 영 아 예 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ตัน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영 아 예 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센터빌인안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초·중·고 대학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타코마인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49)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아프리카 의존성에 해결책은 있는가? 말라위에서 (2)

자연 자원 관리의 책임성 강화는 전 세계적인 관심이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원 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석유, 광물 및 산림과 같은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에 재투자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원들이 분쟁을 더욱 야기하고 국가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이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은 동아프리카 항공운송의 허브역할을 감당한다. 말라위의 수도 릴롱게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는 콩고에 먼저 기착하여 승객들을 내리고 새로운 승객을 태운다. 중국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기내에 가득 찬다. 대부분 그들은 콩고에서 광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콩고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70% 이상을 채굴한다. 희토류 자원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 코발트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주요 요소이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는 리튬보다 약 8배 이상의 코발트가 들어간다. 콩고의 많은 자원은 중국으로 수출되어 사용된다. 세계 최대 코발트 광산을 보유하고 채굴하는 카모토 구리 회사는 거의 대부분을 중국 화오우코발트로 수출하여 정제한다. 이런 코발트의 수요는 전기 차의 급속한 수요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코발트를 채굴하는 콩고에서 생산량의 약 15%를 소규모의 영세한 광부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 장비 없이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독성의 먼지를 들이마시며 일하는 아이들과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자원들이 국가 내부의 분쟁을 초래하거나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광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광물들을 분쟁광물 (Conflict Minerals)라 부르고 무역 규제를 하는데 그것은 무력 분쟁 자금원이 되거나, 노동착취, 인명피해,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아직 코발트는 분쟁광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속히 분쟁광물로 구분하여 투명한 자원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콩고는 풍부한 자원의 대국이지만 자원을 둘러싼 지역 군벌, 외국의 자본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의 전쟁터가 되어 끊임없는 살인, 강간, 납치 및 약탈의 도가니가 되어있는 것이다. 풍부한 자원이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분쟁과 불안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자원에서 얻은 수익은 소득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국제적인 노력과 기업들의 상생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일이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 파트너십 및 원조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로 부터 독립을 하면서 일어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대외원조의 역사와 현실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다르다. 대외원조가 빈곤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줄일 수 없다는 의견 (Jeffrey Sachs)과 줄일 수 없다 (George B. N. Ayittey)는 의견으로 나뉜다.

빈곤을 줄일 수 있다는 대표적 주장을 하는 Sachs는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한 도구로서의 개발 원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 발전과 빈곤 감소를 위한 미국의 헌신이 나름 열매를 맺었다고 평가한다. UN에서 2000년에 들어서면서 만든 세

천년 개발 목표 (MDGs)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고, 이제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s)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Sachs가 지적하는 것은 국가가 다른 국가에 직접 원조를 하는 양자원조의 4분의 1만이 장기적인 빈곤 감소와 질병 감소를 위해 쓴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원조의 효과에 관한 논의는 경제 성장과의 적극적 연관성을 찾아 평가하려고 하였지만 원조의 많은 부분이 폭력과 기근 또는 깊은 경제적 위기에 속한 국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원조가 실패하였다고 평가를 받았다가 실패했다. 그러나 그것은 원조가 실패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조가 실패로 나타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원조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목적 보다는 긴급 상황이나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쓰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조가 개발 원조를 위해 사용되었을 때 가장 성공적이기 때문에 원조는 개발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성공적인 사례들로 아시아의 녹색 혁명, 천연두 박멸, 가족 계획, 아동 생존캠페인, AIDS, 말라리아, 결핵의 치료들이 있다.

이러한 개발의 성공 사례들을 통해 배우는 교훈들은 첫째, 강력하고 저렴한 비용의 기술에 기반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표준화된 프로토콜과 지역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구현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공의 열쇠는 기초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고 행정상으로 실현가능하며 적당한 조건의 기술이다. 셋째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필요한 규모에 적용된다. 여기에 성공의 열쇠는 선행된 기본 기술의 시연이 아니라 그 기술의 차이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규모에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로 기술이 잘 알려져 있고, 전문적인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다면, 빠른 규모상승은 가능하며 글로벌전략과 현지 적응 및 지원에 기반을 둔다. 넷째로 저소득 국가로의 중재는 신뢰할 수 있는 자금을 바탕으로 한다. 다섯째는 다각도의 중재는 많은 국가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여섯째는 성공률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한 투입, 목표,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Ayittey는 아프리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많은 해외 원조가 아니라 아프리카 자체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나 부정확한 아프리카 지도세력들의 부정확과 만연한 사기적인 외국 원조 스캔들로 인한 실패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돕는 보다 나은 방법은 똑똑한 원조 (Smart ODA) 라는 것이다. 아프리카 도시사회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으로 하여금 원조금을 감시하고 내부에서의 개혁을 부추길 권한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권한의 이양은 이러한 독립체들에게 정보와 자원으로 무장하고 탄압, 부패 및 가난으로부터 자신들 스스로를 해방시킬 제도적 방법을 요구한다고 한다. 개혁은 정부 내의 개혁적인 동료가 아닌 정부 밖에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적이고 독립적인 미디어, 사법부 독립, 독립적인 선거위원회, 독립적인 중앙은행,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민사업, 중립적이며 전문적으로 무장된 보안원 등이라는 것이다. 이런 제안들이 너무나 이상주의적으로 들리는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인들에게 이런 자원들이 투입될 때 그것을 책임감있게 맡을 수 있는 개인들과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또한 그들을 믿고 정부를 소외시키고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투자할 국가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국가로서 미국은 절대적 수치로 보면 가장 큰 기부자이지만 OECD 국가에서 최저 수준의 기부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OECD 국가들에서 GNI의 0.7%를 국가의 공적 원조, 0.3%의 사적 원조 목표를 세웠는데 2022년 덴마크 (0.7%), 독일 (0.83%), 룩셈부르크 (1.00%), 노르웨이 (0.86%)와

스웨덴(0.90%)이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일본은 0.39%를 한국은 0.17%를 제공하였으나 일본은 무상 원조보다 유상 원조가 더 많고 한국은 무상 원조가 더 많았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양자 간 원조와 다자 간 원조가 약 75.5%, 24.5% 비율로 지원 되었는데 양자 간 원조의 경우 유상원조가 36.2%, 무상원조가 63.8%의 비율이었다. 세계에서 16번째로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이다. 말라위는 한국의 ODA 지원국 가운데 54번째로서 372만 불이 지출되었다. 미국은 여러 단체들을 통해 4억1천만 불을 지원하고 있으며 USAID를 통해서 2억3천7백여 만 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이 HIV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지원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의 위상을 위해서 수년간 더 많은 원조를 약속하고 있으나 아직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ODA는 현재 극히 제한적이지만 한국 선교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를 상회하는 수준일 것이다.

국제적 파트너와 협력하여 원조 및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이나 IMF 등의 국제기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의존성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닌 자립성, 역량 강화 및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각 국의 ODA (해외원조 프로그램)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 정책적이며 국제 정치적인 ODA 사업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는 선교사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 어떤 ODA라도 한 국가가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일할 때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여 준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극히 제한된 자원으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특히 한 국가나 지역에서 일할 때 개인적인 사업의 계획이 아니라 전체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의 협력을 위한 노력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실패를 예약하고 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현지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떤 외부인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

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지 지도력과 함께 일하며,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안정과 평화 강화는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말라위는 국가 및 지역 내에서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뛰어난 수준이어서 장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말라위의 현 정부에서 Civil Service Commission (공무원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받았으나 말씀 사역을 위해 사임한 동남 아프리카 장로교회의 수장으로 섬겼던 치프고목사는 말라위의 교회가 많은 양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홀어머니는 교회, 후원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아프리카 전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하며 이를 위하여 교회에 선교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으로 복잡하며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단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각 나라의 특정한 요구 사항과 상황에 맞게 맞춰져야 하며, 지역 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서 외부인으로서 선교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가의 변혁을 위해 참여해야 할 것인가. 각자가 받은 사명대로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와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일해야 할 것이다. 현지의 지도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우며, 낙심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돌아주는 위로자로서 격려자로 안내자로 코치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의 프로젝트 건설이 아닌 말라위인들이 우리들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말은 쉽지만 오랜 희생을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선교지나 미래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대륙에 복음적인 성경에 기초한 교회들이 세워져 가도록 체계적인 기독교 교육에 많은 힘을 써야 할 때이다.

dr.yongcho@gmail.com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 (2)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순전한 기독교(1)

C. S. 루이스는 40여 권의 책을 썼다. 많은 루이스의 책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 이 책은 루이스의 방송 강의를 정리한 것이다. 루이스는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8월 6일에 첫 방송 강연을 했고 1944년 4월 4일에 끝난 4차 시리즈까지 총 네 차례의 시리즈 강연을 했다.

루이스는 애국심이 강했다. 그는 1차 대전에는 장교로 전선에 배치를 받아 전투하다 상처를 입고 후송당했다. 1939년 2차 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국토통일대에 편입되어 방범대의 일원으로 매주 하룻밤을 꼬박 새워가며 옥스포드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다. 우리 개념으로

는 예비군과 같은 활동이었다. 학생들이 징집됨으로 루이스 교수는 예상치 못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전쟁 중이던 1941년에 C. S. 루이스는 길이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했다. 하나는 1941년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성공회 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 칼럼을 기고했다. 이 칼럼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로 출간되었다.

1941년에 이룬 두 번째 성과는 BBC 방송국 종교방송부장 J. W. 웰치의 권면에 따라 방송 강연을 시작한 것이다. 아마 애국심이 강했던 루이스가 조국을 사랑해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또 기독교 신앙을 잃어가는 영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웰치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방송

강연을 정리하여 펴낸 책이 지금 우리가 살피는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다.

처음엔 방송 강의를 정리해 세 권으로 발간했다. 1942년에 <방송 강연 (Broadcast Talks)>, 1943년에 <그리스도인의 행동 (Christian Behavior)>, 1944년에 <인격을 넘어 (Beyond Personality)>로 각각 출간했다. 그리고 1952년 세 권을 하나로 묶어서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로 출간했다.

그리고 1955년에는 폰타나 북스에서, 1977년에는 하퍼콜린스 소속 파운더스에서 출판했다. 영어권에서만 3백 50만 권이 팔렸다. 이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나라에서 출판되었는데, 데이비드 마티스 (David Mathis)에 의하면 현재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한다.

루이스는 영국 상공에서 영국 공군과 독일 공군이 항공전을 치열하게 벌이던 1941년 2월에 BBC 종교방송국장 J. W. 웰치 목사의 제안을 받았다. 웰치는 전쟁으로 지친 런던 시민과 영국인에게 기독교 교리를 일반인의 언어로 설명하는 15분짜리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자고 루이스에게 제안했다.

당시 루이스가 지목된 이유가 있었다. 이전에도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성직자들의 방송

은 많이 있었던 데다, 이전 연사들은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평화주의적이든 정치성을 너무 강하게 드러냈다. 루이스는 평신도였고, 정치 이슈에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또한 최근에는 <고통의 문제>를 통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독교 지식인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이 책의 비밀은 뭘까? 도대체 왜 이 책은 이토록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 루이스의 글쓰기 방식과 루이스의 영어권에서만 3백 50만 권이 팔렸다. 이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나라에서 출판되었는데, 데이비드 마티스 (David Mathis)에 의하면 현재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한다.

먼저, 루이스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했다. 루이스는 무조건 최신 사상이 좋다는 소위 '연대기적 속물근성 (Chronicle Snobbery)'을 배격하고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 진리 즉 영원한 진리를 추구했다. 그리고 루이스는 '최신 사상'도 다 그 세대에겐 진부한 얘기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루이스는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유행 보다는 영원한 진리를 찾았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를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정

의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최신 사조보다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전하려고 했다.

둘째로 루이스는 보편적 인간의 문제를 다뤘다. 루이스는 보편적인 기독교 진리에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간의 문제를 다루었다. 인문학자 루이스는 인간의 본질과 보편적 속성을 살폈다. 그는 인간의 보편적 관심과 보편적 문제를 통해서 좌와 함께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복음을 전했다.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작품이다.

셋째로 루이스는 다양한 상징으로 진리를 전했다.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이 책이 사용하는 언어의 생동감이다. 루이스는 상상, 은유, 비유를 사용함으로 기독교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했다. 문학 작가 루이스는 다른 작품처럼 비유와 상징을 통해 기독교 본질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는 난해한 기독교 진리를 읽히는 글로 정리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

넷째로 루이스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루이스는 소위 '값싼 은혜'를 말하지 않았다. '순전한 기독교'는 최소한의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진리

적용의 기준을 낮추거나 쉽게 만들지 않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 루이스는 그리스도를 위해 과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친다.

다섯째 루이스는 철저히 독(毒)자를 배려했다. 루이스는 라디오 방송강연을 시작할 때 전쟁에 지친 시민들을 배려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배려했다. 그래서 독(毒)자를 배려하는 언어와 논리로 접근했다. 그래서 들리는 방송이 되었고 읽히는 책이 되었다. 루이스는 독자를 배려하려고 노력했다. 오늘의 전도자나 강도자 그리고 설교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메시지이다.

스스로 기독교 신앙을 떠난 경험을 가진 루이스는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 강의를 했고 강의 내용을 책으로 펴냈다. 저자는 독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루이스의 다정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수많은 독자가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이유다. 충분한 인문학적 소양과 깊은 고민을 담아낸 순전한 기독교의 메시지는 물론 접근 방식을 배울 수 있음이 21세기 기독교의 축복이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능력의 주를 찬양하라 (시81:9-16) 찬 93장

본문에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가 명 령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8-10절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회상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제일의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 합니다. 탐욕과 향락의 우상에 미쳐있는 우리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이 항상 강조되어 야 합니다. 둘째, 네 입을 넓게 열라 하셨습니다. 8-12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 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이고 감사하라는 것이 고(1-4)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청종하는 백성에게 밀의 아름다운 것 과 반석의 꿀로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화 지존자 하나님 (시83:1-17) 찬 10장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야 합니 다.(18) 어떤 때,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원수의 극심한 공격이 있어날 때 드러납니다. 원수의 회화와 간계, 그리고 주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연합(2-5)이 꾀해질 때 하나님은 자신이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만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이 기도 할 때 하나님의 지존자 되심을 만천 하에 드러내신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나갈 때 드러

납니다. 성도는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미디 안과 시스라 (9), 오렙과 스엌(삿 7:25), 세바와 살몬의 멸 망(삼 8:5-21) 같은 승리를 구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탄식 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의해 모든 일이 판단되 기를 구했습니다.(13-15) 아무리 매일의 영전에 원수의 공 격이 강할지라도 지존자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의 주되심이 드러나도록 겸손히 간구합니다.

수 복된 자 (시84:1-12) 찬 28장

성전을 찾은 순례 행렬의 대표자가 부른 노래로 보는 본 문에서 우리는 복 있는 자는 성전과 관련됨을 발견합니다. 첫째,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됩니다. (1-4) 주의 집, 주의 궁정, 주의 제단으로 명시된 성전은 생존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공홍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의 왕인 그 분이 임 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거기서 열심히(3) 기도하는 자는 복 을 받습니다. 둘째,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이 복됩니다.(5-

8)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과 통하는 교제를 가리킵니다. 순례 자의 고달픈 삶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샘물같은 은혜를 받으며 큰 능력을 받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가는 중 에라도 복을 체험합니다. 셋째,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됩니 다.(9-12) 해와 방패로 비유된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 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주 안에 거하는 복 받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목 부흥의 조건 (시84:4-7) 찬 208장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며 부흥을 구하는 시인에게서 우 리는 부흥의 필수 조건들을 발견합니다. 첫째, 기도가 있었 습니다. 6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 "주님을 기뻐하게하 소시"라는 기도는 주의 은혜와 복과 승리를 구하는 것입니 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교 회의 부흥을 언제나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 죄인의 회심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한 죄인의 회개는 천하보다 귀한 일 입니다. 부흥주의자로 평가받는 찰스피니가 죄인의 적극적

회심에 초점을 맞춘 일은 수동적 태도에 빠진 오늘날 교회 에 꼭 필요합니다. 셋째, 서로 죄를 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보여야 합니다. 10절에 보인대로 공홍과 진리, 의와 화평 그리고 진리와 의를 따른 죄 고백과 헌신의 모습이 일어나 야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골짜기 에 보인 여호와 군대처럼 참 부흥을 이는 신자로 살아갑시 다.(겔 38:1-10)

금 구원의 영광을 보라 (시 85:1-13) 찬 492장

과거의 구원을 기억함은 현재의 구원을 바라보는 영적 욕구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 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누구를 구원하십니 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구원하십니다.(9) 하 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과 거에 야곱의 포로를 돌이키신 하나님은 현재에 주의 인자로 구원을 받게하시며 장래에도 구원의 큰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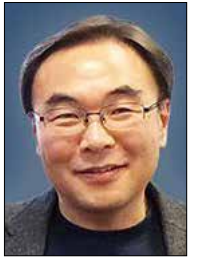
이 땅에 있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의 사랑이 우리 를 살립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의 최고 표현입 니다.(롬 5:8) 셋째, 어떤 구원을 이루십니까? 풍성한 구원입니다. 공홍과 진리가 총만하고 의와 화평이 입 맞추는 구원(오 10:10)입니다. 그리스도안에 농축되 어있는 풍성한 구원의 영광을 내 것으로 누리는 성 도가 됩니다.

토 은총의 표징 (시86:1-17) 찬 498장

그리스도인은 은혜받은 자의 표징을 가졌기에 원수가 부 쪼러워하게 되어있습니다.(17) 첫째, 인생은 은혜없이 못 삽 니다. 그 이유는 죄성을 다해도 쉽게 피곤하고 궁핍해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1) 물을 떠난 고기나 공기 떠 난 새가 혹시 산다해도 주를 떠난 심령은 살지 못하고 절 대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만 이 은혜의 원천입니다. 사유하기를 즐기시고(5) 풍성한 인자

(13,15)가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나 실로암 소경처럼,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구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베푸시는 일반 은혜가 있으나 하나님께 진지하게 구할 때 주 시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그 가치를 알게 하려고 기도할 때 주시려고 제도화 시키셨습니다. 시 인처럼 은총의 표징을 구하여 은혜의 생수를 체험합니다.

기독교 교육 (43)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기독교 성인사역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 부, E.M, 등등 차세대사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것을 위하여 또는 그것 때문에 성인들을 위한 사역을 등한시한다면 차세대사역은 뿌리없는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차세대 사역에 투자하는 것 만큼 성인사역에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특히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와 교회를 볼 때 성인사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인들로서 노화로 인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며,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활동적인 노년, 저활동적 노년, 비활동적인 노년으로 나누어 집니다. 노년은 소유나 지위나 성취에서 의미를 찾기보다 존재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에 대한 정의는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남자 또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가정을 돌보는 여자를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16세가 되면 운전할 수 있고, 18세에는 군에 입대할 수 있으며, 21세에는 술을 마실 수 있고, 25세에는 자동차를 렌트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사춘기의 변화를 거치고 신체적 발달이 완성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장성해서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며, 그 나이는 대개 18세에서 21세입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화평, 절제 등 모든 연령층에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그중에 특히 성숙한 사람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들에게 적용될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또는 사회학적 성인은 독립심과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삶 가운데 홀로서기하는데 필요한 지정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사회적 역할과 임무를 감당합니다.

첫째, 신뢰심: 성경은 성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것을 의미합니다(잠 3:5-6; 시 37:5).

성인은 나이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세부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각 그룹은 나름대로 과제와 문제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류는 성인의 발달단계나 사회적 과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인은 대개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둘째, 책임감: 성경은 성인들이 성숙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언행, 대인관계, 의지적인 결정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롭고 통통적이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고전 13:11; 엡 4:14-15).

첫째, 청년: 이들은 사춘기를 벗어나 완전한 성인이 되어가는 젊은이들로서 주로 20대와 30대를 가리킵니다. 청년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가정과 직업을 시작하면서 홀로서기를 시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동정심: 성경은 성인들이 가족이나 친구 또는 이웃을 사랑과 공홍로 대할 것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있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보여주신 것 같은 공감과 자비와 자기희생을 실천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고전 13:4-7; 엡 4:32).

둘째, 중년: 이들은 주로 40세부터 65세까지의 성인으로 가정생활과 직업활동에서 안정감을 확보하고, 개인적 그리고 직업적인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중년의 많은 성인들이 이직, 승진, 자녀양육, 부모부양 등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기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이 단계에서는 의미있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봉사정신: 성경은 성인들이 선한 정치 기로서 남을 섬겨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잘 관리하고,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벧전 4:10; 마 25:14-30).

셋째, 노년: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성인들을 노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주로 은퇴한

다섯째, 지혜: 성경은 성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분별력을 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잠 3:13-18; 야 1:5).

성인사역은 성인들이 성숙한 인격체가 되는 일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들이 신뢰심, 책임감, 동정심, 봉사정신, 그리고 지혜를 갖추고 성경적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도록 훈련하며,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고 신학을 정립하도록 교육하며,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도록 도와주며, 공동체의 결정과 사역에 동참하도록 장려하며, 의미 있고 영적인 관계를 개발하도록 격려합니다.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성인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jonk@db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캄보디아

살롬!

새해에도 하나님의 셀 수 없는 한결 같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사랑하는 퀸즈장로교회와, 담임 목사님, 선교부 장로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차고 넘치시길 멀리 지구 반 바퀴 너머에 있는 시엠펙에서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춥고 비오고 눈 오는 뉴욕 날씨와 다르게 엄청난 이상 기온으로 어마어마한 더위가 지속되어가는 시엠펙입니다.

이달이 보통 제일 날씨가 좋고 아침엔 춥게 느껴져 긴팔 플리스를 찾아 입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온도가 계속 올라가 평균 33도, 체감온도 38도에 가까워 미국온도로 93-10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이상한걸 보니 지구가 아픈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태우는 이 나라 이다 보니 분리수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는 것도 교육이고 습관이라 가르쳐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 합니다. 월요일 체플 시간에 1층 유치원 실에 아이들이 100명씩 모여 제대로 앉을 자리가 없고 찬양시간이 땀범벅이 되지만 모여 있는 학생들을 보며 이 아이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잘 가르쳐 부모님들에게도 신뢰를 주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프리스쿨 반 28명, 킨다가든 22명, 영어 1반 23명, 영어 2반 21명, 영어 3반 9명이라 영어 3반을 제외하면 각반이 인원 초과이고 교실이 꽉꽉 차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도 힘들어 오전반 새 학생 등록을 마감 시켰고, 새로운 아이들은 오후반에 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월 학교를 개강할때 약 140명이 재등록을 하여 한시

름 놓았고, 한 달 동안 아이들이 계속 모여 현재 185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에 토요일마다 선생님들과 학교 소개하는 광고지를 만들어서 주변 초등학교 3군데를 다니며 부모님들에게 나눠주었고, 이 때문인지, 주변에 소문이 조금 더 나서 한 달 동안 새 학생이 40명 정도 등록하여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일도 이번 달부터 청년부 예배를 시작해서 하루 세 번 드리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밥도 해야 하고 가르치는 봉사도 해야 해 토요일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오전, 오후 주변 공립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3주 동안 세 곳의 학교를 매주 돌며 기다리시는 부모님들께 광고지를 나눠드리고 학교 소개를 하였습니다. 못한다, 안한다 할 수 있고, 최소임금보다 조금 더 주고, 스텝들 반 이상은 파트타임에, 토요일 저녁에도 찬양팀 연습에 참 쉬는 날 없이 섬겨주는 우리 스텝들 한명 한명이 너무 귀하고, "아니오" 한번 안하고 "네"만하는 우리 스텝들 모두가 그렇게 예뻐 수박에 없습디다. 물론 아직 잘 모르고 실수도 있고 혼도 많이 나지만, 이제 갓 스무살이

된 스텝들부터 서른살 속나 전도사까지 늘 순종하고 불평 않고 자리에서 성실하게 해주는 우리 스텝들을 생각할 때마다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제물을 제게 주신다면, 우리 스텝들 집 한 채씩 해주고 자자손손 대학 학비까지 주고 싶을 만큼 적박하고 힘든 이 캄보디아 나라에서 만난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캄보디아 부모님들의 교육열정도 엄청납니다. 주위에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웬만큼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안 보내실 텐데 그럼에도 저희 학교의 미래와 가치관을 보시고 계속 보내주시니, 더욱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고 뭐가 옳다 그르다는 사실 잘 판단이 안 되고, 시험과 등수를 어릴 적부터 하는 게 좋을까 고민도 하지만 지난 일 년 동안 저희 학교 아이들을 보니, 가르치기만 하고 시험을 보지 않았던 반 아이들이 기억을 잘 못하고 단어 하나 스펠하나 말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매주 확인하고 매달 다시 상기시켜주는 시험이 필요하겠구

나, 생각하고 또한 부모님들도 그렇게 어렵게(?) 해주시길 원해서 유치원 아이들도 시험을 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도 전무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보니 페이스북 메신저로 어차피 집에서 아이들이 유튜브를 볼 거라면, 각반의 부모님들에게 어떤 영어 영상을 아이들이 봐야하고, 속제가 있다

면 공부할 수 있게 지도해 달라고 공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전화도, 인터넷도 없어서 페이스북도, 영상도 노출이 안된 몇몇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배우는 속도가 더딤니다. 크마에 수업도, 영어 수업도 늦어서 따로 공부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부모님의 케어가 없고 물질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페드라' 도 저희 학교에서 전액 학비 장학금을 주고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지만, 사실 학급 공부를 거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더디어 부모님의 도움과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아이들을 가르쳐보며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시엠펙에서 박수영 선교사 올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엠발로 종족

▲ 인구 약 1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90%, 복음화율 10%

▲ 복음매체 신약 완역, 구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있음

▲ 종족프로파일 서부 칼리만탄과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변 지역에 흩어져 산다. 종족 이름을 말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우라는 긴 집을 짓고 산다. 네덜란드 식민 지배 때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했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생활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정령숭배와 전통법, 금기 사항도 있다.

- ▲ 기도제목 1. 번역된 말씀이 활발하게 사용되도록 2. 기독교로 개종한 엠발로족이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3. 구약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할 수 있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거의 5개월 만에 쉬었던 운동 할 수 있을까..."하는 걱

“아~ 봄이다 봄!!”

정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체력이 저 자신도 모르게 자꾸 저하되는 듯해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운동을 통해 체력을 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동차를 몰아 늘 오르던 산길로 접어들었는데 놀랍게도 개암나무가 머리에 노오란 물을 들이고 저를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순간 반가운 나머지 제 입에서 "봄이다. 봄!"이라고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하

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봄은 변함없이 오고 있었는데, 봄 사리며 집에 머물고 있느라 머리에 노오란 물까지 들이고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맘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며 봄 소식을 전해주는 개암나무가 얼마나 고맙고 고맙든지 마음을 가누기가 힘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에 다가오는 다음 동요가 제 입에 올라왔습니다.

정이월 다가고 삼월이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또 다시 봄이 온다네

그렇습니다. 몸과 맘을 바짝 움츠러들게 만들던 정이월은 또다시 지나갈 것이고, 봄은 다시 오고, 강남 갔던 제비들은 또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가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때때로 찾아오는 모든 시련에서 소망 중에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생각에 젖어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롬 12:12, 13)."

담임목사 청빙 광고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살렛 벨엘 교회에서 함께할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저희 살렛 벨엘 교회는 ARP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교단 제일 노회 (First Presbytery) 소속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살렛에 위치 하고 있고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지난 28 년동안 우리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기에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자기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
한국어 와 영어 모두 능통한 자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 로써 이민법상 신분에 문제가 없는자
ARP 교단에서 인정 한 학교의 M.Div. degree 이상 소유자
ARP 교단 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인준 기준에 결격 사유 없는자
이민교회 목회 사역 3년 경력 이상 (전도사 포함 5년 이상)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 공부 한자
연령: 43세 - 55세 (만 나이)

제출 서류:

- 이력서 (사진과 가족사항 포함) - 3 page 이하
자기소개서 (사역 경험과 목회 비전 포함) - 10 page 이하
목사 안수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최근설교영상 (2년 이내) - YouTube Link 또는 영상 파일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 바랍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2024년 3월 31일

관심있는 분은 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 들 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민혁 장로 email: bethelkc7121@outlook.com Cell: 704-724-2465

살렛벨엘교회 청빙위원회

7121 Delta Lake Dr, Charlotte, NC 28215 | (704) 566-7173

Youth Pastor 청빙공고

뉴욕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위치한 뉴욕선교교회에서 Youth Pastor를 모집합니다.

- 1. 이중언어 사역 (영어설교 가능하신 분)
2. 파트타임 사역
3. M.Div. 재학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4.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신앙과 소명 간증문
3) Youth사역에 대한 비전

서류제출: newyorkmissionchurch@gmail.com

사례비 및 기타 청빙 관련 문의: 718-451-6348

The New York Mission Church located in College Point, Queens, New York is seeking a Youth Pastor.

- 1. Bilingual ministry (preach in English)
2. Part-time ministry
3. M.Div. Currently enrolled or graduated
4. Documents to be submitted:
1) Resume and self-introduction
2) Testimony of faith and calling
3) Vision for Youth Ministry

Submit documents: newyorkmissionchurch@gmail.com

Inquiries regarding honoraria and other invitations: 718-451-6348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제주도 한달살기

내 버킷 리스트 가운데 '제주도 한달살기'가 있습니다. 오션뷰 돌담집에서 파도 소리와 더불어 자고 깨는 것이 제 로망입니다. 마음껏 바닷냄새를 맡으며,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해변 따라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면 좋겠습니다. 금능해수욕장에서 해염을 치고, 바다낚시를 하며,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올레길을 따라 산책도 하며, 벤치에 앉아 따사로운 햇볕 아래 독서삼매경에 빠져보고 싶습니다. 외돌개, 천치연폭포, 주상절리 등 제주도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광에 매료되고 싶습니다. 일전에 탐 흘리며 먹었던, 낙지와 게가 함께하는 라면, 국수 등을 생각하니 군침이 돌니다. 한라산 정상에 올라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 한달살기 보다 더 좋은 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로 한달살기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바쁜 일상을 떠나 예수와 더불어 한 달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컴퓨터, 스마트폰, 미디어와 손절을 합니다. 날마다 예수와 더불어 자고 깨고, 매일 주님과 산책하며 데이트를 합니다. 구약 시가서와 신약성경을 읽고, 묵상과 기도, 찬양과 경배 속에 주님과 더욱 친밀해집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를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절망은 떠나가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한달살기를 하다 보면 너무 좋아서 일평생 예수와 살게 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일상에서 매일 주님과 손잡고 다니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기쁨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애초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사십일살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 전 광야에서 하나님과 사십일살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와 삼년살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외로운 밭모퉁이에서 예수와 일년살기를 했습니다.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도 한달살기의 로망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한달살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일평생, 영원토록 예수와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살전5:10)

bible66@gmail.com

제 9회 신앙도서독후감 공모전 우수상

팀 켈러의 『탕부의 하나님』을 읽고



윤주미 성도 (베델교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히 3:1). 나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한국에서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공부와 밝은 성격으로 늘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다. "나 같으면 부족한 게 없지!" 하고 생각하며, 남들에게 칭찬 받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리플레이하는 것이 나의 낙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미국 땅을 밟으면서, 나의 자존감을 지탱해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였다. 우월감을 자랑으로 삼았던 나는, 미국사회에서 "비주류"가 되자 깊은 우울감에 허덕이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놓지 못했다. 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내 노력을 헛되게 만드셨을까? 『탕부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알만큼 유명한 탕부 목사 이야기와 관련한 책이다. 돌아온 탕부의 비유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익히 들어온, 별로 새롭지 않은 이야기다. 방탕한 둘째 아들에 관한 고찰, 탕아 같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가 이 누가복음 본문에 대해 들어왔던 수많은 설교들은 대개 이 레퍼토리를 따랐다. 하지만 모태신앙이자 주일학교 모범생이었던 어린 나는, 돌아온 탕부의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은혜를 모르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산 둘째 아들처럼, 나도 날라리 같은 인생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걸까? 강파였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식의 드라마틱한 간증을 들을 때면 억울하기까지 했다. 나의 착실함, 나의 불순종하지 않음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데 결정적 사유가 된 것 같아서였다. 아버지 집을 떠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의 반항심이 공감되지 않았지만, "그래, 나도 탕자 같은 죄인이지"하고 되뇌이며, 인위적인 회개를 반복했다. 저자는 익숙하다 못해 시시해져 버린 이 이야기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이 비유를 진짜 이해하려면,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떻게 보면 뻔한 이 내러티브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 나갈까? 평소 그 팀 켈러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며 들었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 내려갔다. 비유의 1막은 둘째 아들의 충격적인 요청으로 시작된다. 이 아들은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무례하게 요구한다. 아버지와 관계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그저 유산을 물려받는 수단으로만 본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무엄한 요구에 승낙한다. 뿐만 아니라, 이후 유산을 전부 탕진하고 돌아온 절망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준다. 집안은 물론 지역 사회의 수치가 된 아들에게 본인의 옷을 입혀주며, 가장 비싼 살찐 송아지를 잡아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저자는 엄격한 가부장 사회 아래 살고 있던 당시 청중에게,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다 못해 충격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면, 1막에서 이야기가 끝나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러나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2막을 통해 이야기를 완성하신다고 말한다. 2막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파멸아와도 같은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한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아버지를 욕보인다. 이에 아버지는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잔치 자리를 잠시 떠나 첫째 아들을 마중 나온다. 이 또한, 엄격한 가부장 사회였던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다고 한다.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혼내는 대신, 잔치에 함께할 것을 제안하며 달란다. 첫째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고조되는 가운데, 이야기가 끝난다. 우리는 말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왜 열린 결말로 이야기가 끝났을까? 저자는 이

비유의 청중이 바리새와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열린 결말로 이야기를 마침으로써,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못 마땅히 여긴 말인들과 같은 청중이 대신 반응할 것을 촉구하신 것이다. 나아가서 저자는 두 아들은 행동양상만 달랐을 뿐, 둘 다 아버지와 멀리 있었다고 말한다. 자기 뜻을 달성하는 방식만 달랐을 뿐, 두 아들도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다는 것이다.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을, 다른 하나는 "도덕적 순응"의 길을 택했지만,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둘 다 틀렸다! 나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해석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어떤 문학 작품을 읽든지 작가가 의도한 청중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데, 왜 이 비유의 청중이 누구인지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또한 나는 형의 불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순종적인 삶을 산 자의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자는 형의 분노가 자신을 "인류라는 죄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지 않는"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나는 체면을 버리면서까지 둘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만일 또한 애정하여 잔치 밖으로 마중 나온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미국 사회의 "비주류"가 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개하던 나의 모습이, 불평 많은 첫째 아들과 얼마나 닮아 있었던가? 나의 의를 변호하며 우월감이 젖어 있던 모습 이면에는, 남들보다 낮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킨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 밖으로 나와 나를 설득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했던 교만한 자아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를 만나자, 비로소 나의 성취주의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됨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이를 "의의 뿌리까지 회개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죄만 회개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잘한 일의 동기가 회개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자는 율법주의자와 쾌락주의자 형제, 그리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외에도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비유 전에 제시하신 두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다. 세 비유 모두 무언가를 잃어버린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앞의 두 비유와 달리 탕자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없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서 아들들을 대하기는 하지만, 아들들을 직접 찾아 떠나시지는 않는다. 저자는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적 장치라고 주장한다. 앞선 두 비유와의 대조를 통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은 "진정한 형"의 모습을 동경하게끔 유도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비천한 땅으로 내려오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진정한 형인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해석이다. 저자는 이 비유를 분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책을 마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단하다. 바로 그리스도를 목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다. 저자는 그리스도를 목상하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되새기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정말 이게 다인가? 하고 되묻고 싶을 만큼, 믿기 어려운 좋은 소식이다. 비록 주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원망에서 해방시켜주셨지만, 여전히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인간은 죄에 대한 처방으로 "종교적 행위"를 내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처방으로 "은혜"를 내리신다. 말씀을 더 많이 읽는 것, 기도와 봉사를 더 많이 하는 행위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실패로 끝나는 노력에 지친 나를 변화시킨 힘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끝낼 수 없는,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나의 마음의 동기를 정화시킨다. 이 감정이 여전히 나의 행동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 제목이 말해주듯, 이 이야기의 히어로는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진정한 형을 보내신,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탕부" 하나님이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 이야기는 "동생 못지않게 형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두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에 대한 것"이다.故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 누구도 복음의 은혜에서 멀리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내가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던 죄에 찌들어 있는, 진정한 형인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멀지 않다! 나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숙고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듯,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욱 더 깊이 생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믿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선물해주고 싶은 귀한 책이다.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신앙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1. 구약주해: 레위기 1:1-9
2. 신약주해: 갈라디아서 2:11-21
3. 논문제목: 팬데믹 이후 주일학교(차세대) 활성화 방안과 전략
4. 설교본문(하나 텍스트): 구약-사사기 2:1-10 4 제목/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신약-골로새서 1:24 제목/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김요섭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4년 3월3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8회 총회기간(5월 21일~24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4년 5월 20일(월)~21일(화)
장소: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4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김요섭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0,21)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운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김요섭 목사 (Rev. Joseph Y. Kim)
주소 :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전화 : 213-215-8523 / 이메일 laredeemer@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고시부 서기 : 김요섭 목사(Rev. Joseph Y. Kim) laredeemer@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김성국 목사
서기 :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 김요섭 목사